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발행일 2026년 6월 30일
편집·발행인 조정희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TEL 051-797-4800 **FAX** 051-797-4810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02 국내 항만 주요 동향
 17 국외 항만 주요 동향
 33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국내 항만 주요 동향

- 04 부산항,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항만 전환 본격 추진
- 11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공공 화물차 주차장 조성 착수
- 14 대산항, 항만 활성화 기여 기업 대상 지원금 지급

국외 항만 주요 동향

- 23 미국, 관세 선제 대응 조기 선적으로 주요항 수입 물동량 급증
- 22 이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선박 보험 가입 의무화
- 29 로테르담항, 내륙수로선 터미널 간 자율 운항 실증 완료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 33 4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 전체·중국·유럽 모두 증가
- 39 고환율·국제곡물가 강세로 국내 사료값 인상 지속
- 65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지연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공급 불안 지속

01 국내 항만 동향

1) 부산항



① 부산항만공사, 국산 전기 야드트랙터 운영 성과 공개¹⁾

-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BPA, Busan Port Authority)는 국내 최초 국산 전기 야드트랙터 운영 성과를 공개하고 사용자 간담회를 개최함

 - 2026년 4월 북항 신선대감만터미널과 신항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에 국산 전기 야드트랙터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운영을 개시함
 - 장비 시연과 운영 실적을 공유하고 부두 운영사의 사업 참여 확대를 독려했으며, 주행 성능, 작업 안정성, 충전 편의성 등에서 국산 장비의 경쟁력을 확인함
- 항만 무탄소화 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전기 야드트랙터 보급 확대를 추진함

 - 전기 야드트랙터 구매 비용은 해양수산부 25%, 부산항만공사 25%, 운영사가 50% 부담했으며, 기존 경유 및 LNG 야드트랙터 대비 온실가스 배출 100% 저감이 기대됨
 - 2026년 6월 중 2차년도 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선정된 운영사에 전기 야드트랙터 전환을 지원함

국산 전기 야드트랙터



자료: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6.05.26.), https://www.busanpa.com/board/view.bpa?boardId=BBS_0000031&menuCd=DOM_00000105002001000&paging=ok&startPage=3&dataSid=36340(2026.06.26. 검색)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1)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6.05.26.), https://www.busanpa.com/board/view.bpa?boardId=BBS_0000031&menuCd=DOM_00000105002001000&paging=ok&startPage=3&dataSid=36340(2026.06.26. 검색)

2 부산항만공사,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협력 확대²⁾

 BPA는 중국 Ningbo Sea Silk Road Port Cooperation Forum에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부산항 대응 전략과 추진 성과를 소개함

- 제10회 Ningbo Sea Silk Road Port Cooperation Forum 고위급 회의에서 지정학적 위기와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부산항의 역할과 전략을 발표함
- 부산항이 세계 주요 환적항으로서 국제 연결망과 안정적인 항만 운영 역량을 기반으로 스마트항만 구축, 디지털 전환, 해외물류센터 운영, 항만 간 협력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함
- 항만이 화물 처리 거점을 넘어 국제 교역과 공급망 안정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시설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함

 Ningbo저우산항만그룹 및 중국 현지 해운·물류업계와 협력 기반을 강화함

- Ningbo저우산항만그룹과 동북아 물류망 강화, 항만 운영 효율화, 친환경·탄소중립 대응, 스마트항만 전환 및 선박 입출항 최적화(PCO, Port Call Optimization) 협력 방안을 논의함
- 중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 해운·물류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급망 불안정, 중국 해운·항만시장 동향, 물류 운영 애로사항을 청취함
- 중국 주요 항만 및 현지 해운·물류업계와의 협력망을 확대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6.05.27.), [https://www.busanpa.com/board/view.bpa?boardId=BBS_0000031&menuCd=DOM_000000105002001000&paging=ok&startPage=3&dataSid=36345\(2026.06.26. 검색\)](https://www.busanpa.com/board/view.bpa?boardId=BBS_0000031&menuCd=DOM_000000105002001000&paging=ok&startPage=3&dataSid=36345(2026.06.26. 검색))

3 BPA, 부산항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항만 전환 추진³⁾⁴⁾⁵⁾

BPA는 국내 최초 항만건설용 인공지능(AI) 챗봇을 도입해 건설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함

- 2026년 6월부터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항만건설용 AI 챗봇을 실무에 도입함
- 폐쇄형 시스템과 데이터 보안 체계를 구축해 국가보안시설 특성을 고려한 인공지능 활용 기반을 마련했으며, 법령, 내부 규정, 운영 제도 등 방대한 정보를 자연어 질의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함
- 실제 업무 의견을 지속 반영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데이터 기반 업무 환경을 조성할 계획임

BPA는 부산항 특화 실물 인공지능(피지컬 AI) 사업기획 수립에 착수함

- 부산정보산업진흥원(BIPA, Busan IT Industry Promotion Agency)과 협력해 K-해양 인공지능 벨트 조성 전략을 추진함
- 부산항 인공지능 대전환(AX) 계획과 연계한 실물 인공지능 연구기획, 사업화 및 실증·확산 방안을 마련함
- 항만·조선·국방·문화 분야의 실물 인공지능 선도사업과 인재·창업·인프라 기반 생태계 조성을 추진했으며, 국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응과 국책사업 기획을 통해 부산을 해양 인공지능 전략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임

BPA는 현대자동차와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항만 협력을 구체화함

- 현대자동차 및 그룹사, 창업 초기 기업과 기술교류회를 개최해 항만산업 협력 가능성을 논의함
- 항만 디지털 전환(DX), 인공지능 전환(AX) 추진 현황과 항만물류통합플랫폼 체인포털(Chain Portal) 운영 계획을 공유했으며,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틱스, 친환경 에너지 분야의 공동 연구와 실증사업 추진 방안을 협의함
- 또한, 정례 기술 교류를 통해 개념검증(PoC), 실증사업 및 사업화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3)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6.05.28.), https://www.busanpa.com/board/view.bpa?boardId=BBS_0000031&menuCd=DOM_000000105002001000&paging=ok&startPage=2&dataSid=36348(2026.06.26. 검색)

4)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6.06.05.), https://www.busanpa.com/board/view.bpa?boardId=BBS_0000031&menuCd=DOM_000000105002001000&paging=ok&startPage=2&dataSid=36402(2026.06.26. 검색)

5)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6.06.12.), https://www.busanpa.com/board/view.bpa?boardId=BBS_0000031&menuCd=DOM_000000105002001000&paging=ok&startPage=2&dataSid=36426(2026.06.26. 검색)

2) 인천항



1 말레이시아·인도 현지 물동량 유치 마케팅 추진⁶⁾

- 인천항만공사(IPA, Incheon Port Authority)는 2026년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말레이시아 포트클랑(Port Klang)을 방문해 현지 화주·물류사·선사를 대상으로 밀착형 물동량 유치 마케팅을 추진함**

 - 이번 포트세일즈는 운영 부문 부사장을 단장으로 마케팅 인력이 참여했으며, 마·이란 전쟁으로 감소한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을 회복하기 위해 현지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추진됨
 - 인천~말레이시아 물동량은 2025년 전년 대비 33.6% 급감한 데 이어 2026년 1~5월에도 13.3% 추가 감소하는 등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현장 마케팅의 필요성이 부각됨
- 공사는 국적선사 및 현지 선사를 대상으로 신규 기항 확대와 선복 증편 방안을 논의함**

 - 공사는 6월 23일 포트클랑에서 말레이시아 주재 국적선사 고려해운·장금상선·HMM 법인장 초청 간담회와 현지 선사인 MTT Shipping을 방문해 협의를 진행함
 - 이 자리에서 인천항 화종별 물동량 추세와 화주·선사 인센티브 제도를 소개하고, 신규 기항 확대 및 선복 증편 방안을 집중 논의함
 - 이어 6월 24일에는 말레이시아 현지에 생산·물류 거점을 둔 삼성SDS, LX판토스, 태웅로직스 등 주요 화주·물류사를 방문해 인천항 물류 기반 시설, 수도권 접근성, 화주 인센티브 제도 등을 소개하고 인천항을 활용한 수출입 물류 확대를 요청함
- 공사는 인도 첸나이로 이동해 인천~인도 신규 항로 개설을 위한 선사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임**

 - 공사는 6월 25일 인도 첸나이에서 현지 선사 Eastern Liner Shipping과 인도 주재 국적선사 남성해운을 방문해 인천~인도 신규 항로 개설을 위한 선사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 인천~인도 물동량이 2026년 1~5월 전년 동기 대비 37.4% 급증하며 성장세로 전환된 만큼, 공사는 현장에서 직접 선사를 설득해 신규 직항 서비스 개설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임
 - 공사는 현지에서 직접 고객사를 만나 인천항의 강점을 설명하고 실질적인 물동량 유치로 연계하는 것이 이번 출장의 핵심이라며, K-뷰티·푸드·패션 등 유망 품목의 원활한 현지 수출을 위한 항로 개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힘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6)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6.06.25.),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32494&boardKey=217&menuKey=3996¤tPageNo=1>(2026.06.25. 검색)

2 아암물류2단지 2단계 부지(A구역) 입주기업 2차 모집⁷⁾

-  IPA는 인천남항 아암물류2단지 2단계 부지(A구역)에 인천항을 통한 수출입화물을 창출할 수 있는 국내외 우수기업들을 모집한다고 밝힘
 - 이번 공고는 2차 모집으로 아암물류2단지 2단계 부지 59만㎡ 중 22만㎡에 해당하는 A구역 6개 부지를 대상으로 하며, 모집 기간은 2026년 6월 24일에서 8월 12일까지임
 - 공급 부지는 초소형 부지 4개(43천㎡), 중형 부지 1개(54천㎡), 대형 부지 1개(126천㎡)로 구성됨
-  인천항을 통한 수출입화물 물동량을 창출하는 업종은 모두 입주 신청이 가능함
 - 복합물류, 공동물류, 제조물류, 냉동·냉장물류 등 인천항을 통한 수출입화물 물동량을 창출하는 업종은 모두 입주를 신청할 수 있음
 - 임대 기간은 30년이며, 사업실적평가 결과 등에 따라 최대 50년까지 사용 가능함
-  공사는 공개경쟁방식을 통해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계획임
 - 입주 희망 기업은 안내서에 따라 8월 13일 17시까지 공사를 방문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공사는 물류·회계·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공개경쟁 방식으로 우선협상자를 선정함
 -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입찰정보-항만입찰정보 안내)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공사는 아암물류2단지가 인천항의 미래 물류 거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우수 물류기업들이 사업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힘

7)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6.06.23.),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32485&boardKey=217&menuKey=3996¤tPageNo=1>(2026.06.25.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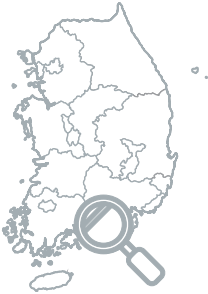
사업대상지 위치도



자료: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6.06.23.),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32485&boardKey=217&menuKey=3996¤tPageNo=1>(2026.06.25.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3) 여수·광양항



① 여수광양항만공사, 자동차 하역·LNG 벙커링 동시 작업 시행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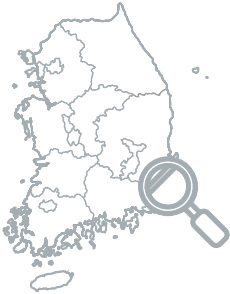
-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Yeosu Gwangyang Port Authority)는 2026년 6월 5~6일 광양항 자동차부두에서 자동차 하역과 LNG(액화천연가스) 벙커링 동시 작업에 성공하면서 친환경 연료 공급 역량과 항만 운영 효율성을 함께 입증함
- LNG 벙커링 전용선 'BLUE WHALE호'가 7만 톤급 자동차운반선 'CMA CGM MONACO호'에 약 1,020톤의 LNG를 공급하면서 하역과 연료 공급이 한 정박 시간 내에 병행됨
- 이번 작업은 2026년 3월에 이은 광양항의 두 번째 자동차 하역·LNG 벙커링 동시 작업 사례로, 항만의 친환경 연료 공급 역량 안정성이 재확인됨
- LNG는 기존 선박유 대비 황산화물(SOx)과 미세먼지 배출을 크게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연료로 평가됨
- 글로벌 해운시장의 탄소중립·친환경 전환 흐름에 따라 LNG 추진선 도입이 확대되면서 안정적 LNG 공급 인프라를 갖춘 항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YGPA는 IMO 환경규제 강화와 글로벌 LNG 추진선 도입 확대 흐름에 대응해 LNG 터미널 확장 등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 거점항만 육성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박세리 전문연구원

051-797-4690, seri.park@kmi.re.kr

8) 아시아경제(2026.06.09.),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60907351892161>(2026.06.20. 검색)

4) 울산항



1 울산항만공사, 맞춤형 인센티브 운영⁹⁾

- 🏢 울산항만공사(UPA, Ulsan Port Authority)는 울산항 물동량 증대와 이용 고객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를 시행함
 - 컨테이너화물 9억 원, 자동차화물을 포함한 일반화물 2억 원 등 총 11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편성함
 - 선사, 터미널, 화물운송주선인(포워더), 화주를 대상으로 기존 물동량의 타 항만 이탈 방지와 신규 물동량 유치를 추진함
 - 컨테이너 증가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화물운송주선인 인센티브를 확대해 적·공 컨테이너 불균형 해소를 추진함
 - 자동차화물 인센티브 운영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특별도선·재접안 인센티브 유지와 바이오 선박연료 급유 인센티브 개선을 통해 울산항 경쟁력과 친환경 항만 기능을 강화함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9) 울산항만공사(2026.05.28.), <https://www.upa.or.kr/portal/board/post/view.do?bcldx=671&mid=0501010000&idx=16403>(2026.06.26. 검색)

2 UPA, 북신항 액체부두 상부사업 추진¹⁰⁾¹¹⁾

UPA는 북신항 액체부두 1단계 상부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함

- 본 공모에 앞서 민간기업의 사업 참여 의향, 사업모델, 투자 규모, 시설계획 등을 확인하기 위한 비구속적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함
- 북신항 액체부두 1단계는 선석 조성을 완료했으며, 2026년 6월 현재 배후부지 조성 공정률은 약 97%로 9월 말 완공을 앞두고 있음
- 수소·암모니아의 수입·저장·보관·유통과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기능을 수행하는 친환경 에너지 물류거점 조성을 추진함
-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본 공모 설계와 상부사업자 선정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임

북신항 액체부두 1단계 상부사업의 민간 투자 참여 기반을 마련함

- UPA는 잠재 투자자와 에너지기업, 액체화물·에너지 터미널 운영사, 투자기관 및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함
- 울산항 그린수소 물류허브 구축사업과 북신항 액체부두 1단계 추진 현황 및 향후 일정을 소개했으며, 상부사업 사전 수요조사와 연계해 시장 의견을 수렴하고 질의 응답을 진행함
- 설명회와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종합 검토해 본 공모 구조를 설계하고 상부사업자 선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임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10) 울산항만공사(2026.05.18.), <https://www.upa.or.kr/portal/board/post/view.do?bclidx=671&mid=0501010000&idx=16395>(2026.06.26. 검색)

11) 울산항만공사(2026.06.05.), <https://www.upa.or.kr/portal/board/post/view.do?bclidx=671&mid=0501010000&idx=16410>(2026.06.26. 검색)

5) 평택·당진항



① 평택해수청, 항만배후단지 공공 화물차 주차장 조성 착수¹²⁾

- ▶ 평택지방해양수산청(평택해수청)이 2026년 6월 평택·당진항 제1종 항만배후단지 공공 화물차 주차장 조성공사 기본·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면서 항만물동량 증가에 따른 화물차 주차난 해소를 본격 추진함
- 이번 사업은 평택·당진항 물동량 증가에 따른 화물차 통행 증가와 주차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됨
- 6월 19일 착수보고회에는 평택시·평택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사업 개요와 분야별 설계 일정·향후 운영 계획을 논의할 예정임
- 평택해수청은 주차장 조성을 통해 항만 내 육상 물류 운송체계의 체계적 정비와 화물 운전자 근로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진함
- 항만 인근 도로 불법 주차 해소·교통 혼잡 완화·안전사고 예방 효과도 기대되며, 설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주차장 조성 공사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임

박세리 전문연구원

051-797-4690, seri.park@kmi.re.kr

12) 신아일보(2026.06.16.),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31199>(2026.06.21. 검색)

6) 포항항



1 포항해수청·포스코(POSCO), 2026년 상반기 항만안전 정기교류회 개최¹³⁾

- ▶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해수청)과 포스코(POSCO)는 항만 안전 확보 및 무재해 사업장 실현을 위해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2026년 상반기 항만안전 정기교류회’를 공동 개최함
- 행사 1일 차인 10일에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인재창조관에서 포항항 원료·제품부두의 안전활동 우수 사례 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되었으며, 한진·동방·세방·CJ대한통운·인터지스 등 주요 하역사들의 현장 안전 관리 사례도 공유됨
- 행사 2일 차인 11일에는 지방청 항만안전점검관과 양소 하역사 관계자들이 포항제철소 제품·원료부두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는 일정으로 마무리됨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13) 한국해운신문(2026.06.08.), <https://www.maritime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1576>(2026.06.16. 검색)

7) 동해·묵호항



1 어촌뉴딜3.0 경제도약형 공모 신청으로 체류형 관광거점 육성 추진¹⁴⁾

-  강원특별자치도는 2027년도 어촌뉴딜3.0 공모사업 경제도약형 부문에 동해·묵호항 신청하며 지역경제 거점 조성에 나섬

 - 어촌뉴딜3.0 사업은 낙후된 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해 어촌형 경제·생활 거점을 조성하는 해양수산부 주관 사업임
 - 경제도약형 부문은 최대 300억 원 규모로 5년간 추진되며, 민간투자와 연계한 지역경제 거점 조성에 초점을 둠
 - 올해 전국 공모 규모는 경제도약형 5개소와 어촌회복형 35개소 등 총 40개소이며, 강원특별자치도는 경제도약형에 묵호항과 삼척항, 어촌회복형에 고성군 교암·문암2리항을 신청해 총 700억 원(국비 370억 원) 규모의 국비 확보에 나섬
-  묵호항은 수산·관광 복합공간 조성을 통해 동해안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육성됨

 - 묵호항은 수산·관광 복합공간 조성, 보행환경 개선, 분산형 언덕호텔 조성 등을 통해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육성될 계획임
 - 해양관광과 지역 상권을 연계해 동해안 체류형 관광 수요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둠
-  강원특별자치도는 7월 종합평가 발표에 대비해 사업 타당성과 지역 연계 전략을 보완할 방침임

 -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공모가 정부 선정 규모를 웃도는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며, 6월 예정된 해양수산부 서면·현장평가에 대비해 사업 타당성과 지역 연계 전략을 집중 보완할 계획임
 - 최종 대상지는 7월 종합평가를 거쳐 해양수산부가 발표할 예정임
 - 강원특별자치도는 어촌뉴딜3.0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어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 사업이라며, 어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 확보와 공모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14) 해양레저뉴스(2026.05.28.), [https://mnlnews.net/news/view.php?bldx=48182\(2026.06.25. 검색\)](https://mnlnews.net/news/view.php?bldx=48182(2026.06.25. 검색))

8) 목포항



1 목포해수청, 제31회 바다의 날 맞아 민·관·군 합동 해양정화활동 실시¹⁵⁾

- 목포지방해양수산청(목포해수청)은 제31회 바다의 날을 맞아 목포 동명동 소형선부두 일원에서 목포해양경찰서, 해군 제3함대사령부, 해양환경공단 등 19개 단체 220여 명이 참여하는 민·관·군 합동 해양정화활동을 실시함
- 참가자들은 소형선부두 주변 연안 쓰레기를 수거하고 잠수 인력을 투입하여 수중 침적 폐기물 총 3톤가량을 수거함
- 이날 행사에서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 승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앞두고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와 해양 안전 문화 확산 캠페인도 함께 진행됨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9) 대산항



1 서산시, 항만 활성화 지원금 지급¹⁶⁾

- 서산시는 대산항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12개사를 대상으로 총 5억 9,400만 원의 지원금 지급을 결정함
- 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대산항 활성화 지원사업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원금 지급을 확정함
- 지원 대상은 2025년 대산항을 통해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한 화주 5개사, 선사 6개사, 하역사 1개사 등 총 12개사임
- 지원금은 대산항 이용 촉진과 물동량 증대를 위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급됨
- 대산항은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를 기반으로 하역능력을 확충하며 항만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음
- 사업 완료 시 컨테이너 처리능력이 시간당 25개에서 50개로 확대될 예정임
- 2026년 1분기 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30,694TEU로 전년 동기 18,164TEU 대비 약 68% 증가함
- 서산시는 지속적인 항만 마케팅과 2026년 1월 동남아 서비스항로 추가 개설이 물동량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설명함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15) 해사신문(2026.05.28.), <https://www.haes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8323>(2026.06.16. 검색)

16) 서산시 보도자료(2026.05.25.), [https://www.seosan.go.kr/www/selectBbsNttView.do?key=1260&bbsNo=101&nttNo=294522&searchCtry=&searchCnd=SJ&searchKwd=%EB%8C%80%EC%82%B0%ED%95%AD&pageIndex=1&integrDeptCode=\(2026.06.26. 검색\)](https://www.seosan.go.kr/www/selectBbsNttView.do?key=1260&bbsNo=101&nttNo=294522&searchCtry=&searchCnd=SJ&searchKwd=%EB%8C%80%EC%82%B0%ED%95%AD&pageIndex=1&integrDeptCode=(2026.06.26. 검색))

10) 군산항



1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 군산항 명칭 삭제 논란으로 재입법예고 가능성 제기¹⁷⁾

- 군산항 명칭 삭제 논란으로 지역사회의 반발을 불러온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이 재입법예고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제기됨**

 - 해양수산부는 2025년 9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이후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약 1년간 지연되고 있음
 - 군산시 관계자는 개정안이 재입법예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힘
 - 개정안이 입법예고 후 장기간 표류한 것은 항만 명칭과 위치 등을 둘러싸고 군산시와 김제시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됨
- 개정안의 핵심은 항만법 시행령 제3조 별표상의 항만 명칭 및 위치 정비임**

 -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신항 개발과 항만 운영 체계 변화에 맞춰 항만 구역과 명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옴
 - 개정안의 골자는 기존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묶어 새만금항으로 변경하고, 그 위치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및 새만금 제2호 방조제 전면 해상으로 하는 것임
 - 수상구역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새만금 제2호 방조제 일대 지점을 기점으로 명시함
- 군산시와 지역 정치권은 군산항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고려한 개정안 재검토를 촉구함**

 - 군산시는 127년 역사를 지닌 군산항 명칭을 삭제하는 것은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해 옴
 - 군산시의회 등 정치권도 국가관리무역항으로서 군산항이 지닌 역사성과 상징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개정안 재검토를 촉구함
 - 해양수산부가 재입법예고에 나설 경우 군산항 명칭 유지 여부와 새만금항 위치 표기를 둘러싼 논의가 원점에서 재추진될 가능성이 있음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17) 투데이군산(2026.06.15.), <https://www.todayguns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52>(2026.06.25. 검색)

11) 마산항



1 마산해수청·창원시, '마산항과 동남권 해역 발전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세미나' 개최¹⁸⁾

- 📍 마산지방해양수산청(마산해수청)과 창원시는 6월 25일 마산로봇랜드 컨벤션센터에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함
 - 세미나에는 항만물류 관계자, 창원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함
 - 제1세션에서는 마산항의 중량화물 허브항 육성을 위한 항만배후단지 추가 조성 및 인프라 구축 방안이 발표됨
 - 제2세션에서는 동남권 해역의 국제 종합 항만서비스 거점화를 위한 정박지 추가 지정 및 벙커링 전용터미널 구축 방안이 논의됨
 - 패널 토론에서는 북극항로 개설에 따른 동남권 해양수도권 육성 전략과 중동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복구사업 참여를 위한 경남 기업의 항만물류 인프라 활용 방안이 다루어짐
 - 창원산단 관계자 등 현장 종사자들은 화물 수출입 시 발생하는 물류 병목 현상 해소 및 항만 인프라 확충 필요성에 대한 정책 제언을 제시함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18) 마산지방해양수산청(2026.06.25.), 내부자료

02 국외 항만 동향

1) 중국



① 5월 수출, AI 관련 첨단기술 수요로 19.4% 증가¹⁹⁾

- 중국의 2026년 5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9.4% 증가하였으며, 글로벌 AI 호황에 따른 반도체 관련 제품의 수요 급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 메모리 가격이 전월 대비 20% 상승하면서 집적회로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11% 증가하였으며, 자동자료처리장비(ADP), 첨단기술 제품은 각각 66.1%, 50.9% 증가함
 - 자동차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39% 증가하며 첨단 제조업 제품의 수출 호조가 이어짐
 -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27.4% 증가해 4월(25.3%)과 시장 전망치(25%)를 모두 상회함
- 한편, 비 AI 품목과 신규 수출 주문에서는 성장세가 약화되는 모습이 나타남
 - 가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9%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완구와 신발 수출은 각각 7%, 10.4% 감소함
 -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에 따르면, 신규 수출 주문은 2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던 4월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들은 일부 수출 품목의 약세와 취약한 내수로 추가적인 정책 지원 필요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함

신현수 연구원

051-797-4679, hynsoo215@kmi.re.kr

19) Reuters(2026.06.11.), <https://www.reuters.com/world/china/chinas-may-trade-data-beat-forecasts-exporters-rush-orders-ride-ai-wave-2026-06-09/>(2026.06.25. 검색)

2 중국 항만, 2025년 CPPI 상위권 기록²⁰⁾

 세계은행(World Bank)과 S&P Global이 발표한 CPPI(Container Port Performance Index)에서 중국 항만이 상위권을 차지함

- 동아시아 항만의 강세가 이어진 가운데 중국 항만 6곳이 세계 상위 16위에 포함됨
- 푸저우항이 1위를 차지했으며 다롄항, 오만 살랄라항, 마완항, 츠완항이 뒤를 이음
- 2020년 이후 최대 개선 항만으로는 구조적 병목을 해소한 포트엘리자베스항(남아프리카공화국), 칼리파 빈 살만항(바레인), 포소르하항(에콰도르), 예테보리항 (스웨덴) 등이 꼽힘
- 전년 대비 기준으로는 더반항이 최대 개선폭을 기록하는 등 남아프리카공화국 항만들이 회복세를 주도함

 CCPPI 보고서는 효율적 항만이 공급망 충격을 흡수하는 반면 혼잡한 항만은 정기선 네트워크 전반으로 지연을 확산시킨다고 분석함

- 올해 보고서는 지연 선박의 동시 도착으로 발생하는 '순간 혼잡(burst congestion)'을 주요 현상으로 지목하며, 호르무즈 해협·홍해 우회에 따른 항만 혼잡을 사례로 제시함
- WB는 항만이 단순히 외부 충격에 수동적으로 노출되는 존재가 아니라, 충격의 전달방식을 능동적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힘
- S&P Global은 향후 공급망 차질 대비를 위해 항만의 운영 효율성 및 회복탄력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힘

신현수 연구원

051-797-4679, hynsoo215@kmi.re.kr

20) Splash(2026.06.11.), [https://splash247.com/chinese-ports-dominate-global-efficiency-rankings\(2026.06.25. 검색\)](https://splash247.com/chinese-ports-dominate-global-efficiency-rankings(2026.06.25. 검색))

2) 아시아



1 싱가포르 해사항만청·MSC, 해운 디지털화·탈탄소화 협력 MOU 체결²¹⁾

- 싱가포르 해사항만청(MPA, Maritime and Port Authority of Singapore)과 스위스 국적선사 MSC(Mediterranean Shipping Company)는 디지털화 및 탈탄소화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함

 - 협력 범위는 신규 항로 및 서비스 모색, 바이오 LNG(bio-LNG)를 포함한 대체 선박연료 도입 지원, 선박 에너지 효율 개선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춤
 - 선박 입항 및 항만 운영 절차 간소화를 포함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해운 디지털화 사업에도 협력할 예정임
- 이번 협약은 MSC의 싱가포르 아시아지역본부 및 현지법인 설립 30주년을 계기로 장기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됨

 - MSC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싱가포르를 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하며 현지 사업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임

신현수 연구원

051-797-4679, hynsoo215@kmi.re.kr

21) MSC(2026.06.03.), <https://www.msc.com/en/newsroom/news/local-news/singapore/2026/june/mpa-and-msc-sign-memorandum-of-understanding-to-advance-sustainable-and-digital-maritime-development>(2026.06.25. 검색)

2 일본, 항만·물류 분야에 1조 2천억 엔 투자 계획 발표²²⁾

 일본 정부가 항만 하역장비, 항만·물류 디지털 전환 및 차세대형 창고 등 3개 분야에 총 1조 2천억 엔을 투자하는 ‘민관 투자 로드맵’을 공개함

- 일본 정부는 2040년까지 항만 하역장비에 4천억 엔, 항만·물류 디지털 전환에 2천억 엔, 차세대 창고 6천억 엔을 투자할 것이라 밝힘
- 항만 하역장비 분야에서는 자국 기업의 제조라인, 출하부두, 제품 운반선 등 생산·출하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컨테이너 터미널 내 노후 장비 교체와 자동화·원격조종 시스템 도입을 지원할 계획임
-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는 항만·물류 통합 플랫폼인 사이버포트(Cyber Port)의 이용 기업 수를 현재 약 1,100개에서 2035년까지 약 1만 1천 개로 확대하고, 민간기업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과의 연계를 지원할 계획임
- 차세대 창고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기존 창고를 자동화·기계화된 시설로 전환하고, 저금리 융자 등을 통해 노후화되거나 규모가 작은 기존 창고의 통합·재편을 지원할 계획임

신현수 연구원

051-797-4679, hynsoo215@kmi.re.kr

22) 일본해사신문(2026.06.26.), [https://www.jmd.co.jp/article.php?no=316405\(2026.06.26. 검색\)](https://www.jmd.co.jp/article.php?no=316405(2026.06.26. 검색))

3 인도 자와할랄 네루항, 수입 컨테이너 장치료 50% 환급²³⁾

- 자와할랄 네루 항만청(JNPA, Jawaharlal Nehru Port Authority)은 터미널에 8일을 초과해 장치된 수입 컨테이너에 대해 장치료의 50%를 환급한다고 발표함
 - 이는 4월과 5월 발생한 트레일러 운전기사 부족으로 컨테이너 반출이 지연된 화주를 지원하는 조치임
 - JNPA는 화주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발생한 추가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함
- 컨테이너가 양하된 후 9일째부터 실제 터미널 반출일까지 발생한 장치료의 50%를 환급할 계획임
 - 지원 대상은 컨테이너화물조작장(CFS)으로 운송되거나 항만 직반출 방식으로 통관되는 수입 컨테이너 가운데, 선박 양하 시점이 5월 1일 이후이며 6월 20일까지 터미널에서 반출된 컨테이너로 한정함
 - 다만, 6월 12일 이후 양하된 컨테이너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신현수 연구원

051-797-4679, hynsoo215@kmi.re.kr

23) Port Technology International(2026.06.10.), <https://www.porttechnology.org/jnpa-introduces-50-per-cent-ground-rent-reimbursement/> (2026.06.26. 검색)

4 이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선박 보험 가입 의무화²⁴⁾

-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페르시아만해협관리청(PGSA, Persian Gulf Strait Authority)이 승인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함

 - PGSA가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 제출한 약관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는 모든 선박의 선주는 본 기관이 승인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명시됨
 - 해당 보험은 미국·이란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인 60일 동안은 무료로 제공되며, 이란 정부가 관련 비용을 부담함
 - 다만, PGSA는 유효기간 이후 본 기관이 보험료를 도입할 권리를 보유하며, 선주는 보험에 가입하고 필요에 따라 갱신해야 한다고 설명함
-  이란은 지정 항로 이용 및 사전 통항 허가 취득을 요구하며, 미준수 선박에 대한 허가 취소와 법적 조치를 예고함

 - 이란은 라라크섬(Larak Island) 인근의 지정 항로를 통해서만 통항할 수 있으며, PGSA가 통항 신청 처리 및 허가 발급을 담당하는 유일한 기관이라 주장함
 - PGSA는 지정 항로 이탈을 위반행위로 규정하며, 제시된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통항 허가를 취소하거나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함
-  업계 및 중동 걸프 지역 관계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어떠한 형태의 통항료를 부과하는 것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

 - 미국은 60일 이후에도 통항료 없는 통항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IMO도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비용 부과를 허용할 경우 다른 전략적 수로에도 유사한 제도가 도입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함

신현수 연구원

051-797-4679, hynsoo215@kmi.re.kr

24) Lloyd's List(2026.06.19.), [https://www.lloydslist.com/LL1157571/Iran-imposes-mandatory-insurance-on-ships-transiting-Strait-of-Hormuz-with-fees-likely-to-follow\(2026.06.25. 검색\)](https://www.lloydslist.com/LL1157571/Iran-imposes-mandatory-insurance-on-ships-transiting-Strait-of-Hormuz-with-fees-likely-to-follow(2026.06.25. 검색))

3) 미주



1 미국 주요 컨테이너항, 조기 선적 영향으로 수입 물동량 일시 증가 전망²⁵⁾

- 📍 미국 주요 컨테이너항의 수입 물동량은 추가 관세와 연료 가격 상승에 대비한 조기 선적으로 일시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전미소매협회(NRF, National Retail Federation)는 소매업체들이 8월 이후 예상되는 비용 증가를 피하고자 성수기 화물을 앞당겨 반입하고 있다고 분석함
 - NRF 자료에 따르면, LA·LB항, 뉴욕·뉴저지항, 휴스턴항 등을 포함한 미국 주요 컨테이너항의 5월 수입 물동량은 전년 동월 대비 9.7% 증가한 214만 TEU, 6월은 14.3% 증가한 225만 TEU로 전망됨
- 📍 조기 선적 효과가 약화되면서 7월부터 9월까지의 수입 물동량은 2025년 수준을 하회할 전망이다
 - 물가 상승과 추가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 및 중국발 물동량 감소가 가을철 수입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됨
 - 2026년 7월 수입 물동량은 전년 동월 대비 8.4% 감소한 219만 TEU, 8월은 8.6% 감소한 212만 TEU, 9월은 2.2% 감소한 206만 TEU로 전망됨
 - 2026년 10월 수입 물동량은 전년 동월 대비 0.1% 증가한 208만 TEU로, 2025년과 유사한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다

신현수 연구원

051-797-4679, hynsoo215@kmi.re.kr

25) Shipping Telegraph(2026.06.09.), [https://shippingtelegraph.com/port-news/us-import-cargo-volume-to-see-temporary-boost-before-drops-below-2025-levels-into-fall\(2026.06.25. 검색\)](https://shippingtelegraph.com/port-news/us-import-cargo-volume-to-see-temporary-boost-before-drops-below-2025-levels-into-fall(2026.06.25. 검색))

2 롱비치항, 무공해 트럭 도입기업 포상제도 신설²⁶⁾

📍 롱비치항(Port of Long Beach)은 터미널 운송에 무공해 트럭을 조기에 투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80만 달러를 지원하는 ‘무공해 트럭 선도사업자 포상제도(Zero-Emission Truck Early Leaders Award)’를 신설함

- 롱비치항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운행 자료를 기준으로 최대 43개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함
- 무공해 트럭 1대당 평균 운행이 50회 초과 200회 이하인 경우 최대 8,000달러, 200회 초과인 경우 최대 1만 달러를 지급할 예정임
- 대상 기업은 2026년 7~12월 중 차량을 항만 드레이지 트럭(Port Drayage Truck) 등록부에 유지하고 기존 운행 수준을 지켜야 하며, 실적 미달 시 감소분에 비례해 지원금이 조정됨
- 재원은 클린 트럭 기금(Clean Truck Fund) 수입으로 충당함
- 롱비치항은 2026년 말까지 운행 실적을 검증한 뒤 2027년 초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임

📍 이번 제도는 무공해 트럭 조기 도입기업의 투자 부담과 운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됨

- 무공해 트럭은 동급 디젤 차량보다 가격이 두 배 이상 높아 초기 투자 부담이 큰 것으로 평가됨
- 롱비치항은 무탄소 배출 목표 달성에 무공해 트럭 도입은 필수적이며, 기업의 선제적 투자를 보상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마련하였다고 설명함

신현수 연구원

051-797-4679, hynsoo215@kmi.re.kr

26) Port of Long Beach(2026.06.08.), <https://polb.com/port-info/news-and-press/zero-emissions-truck-early-adopters-awarded-almost-5-million-06-08-2026>
(2026.06.25. 검색)

3 서배너항, 냉장 화물 검사시설 개장으로 콜드체인 역량 강화²⁷⁾

-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2026년 7월 1일 서배너항(Port of Savannah)에 신규 냉장 화물 검사시설을 개장할 예정임

 - 신규 시설의 규모는 4,000ft²로, 검사 전 과정에서의 온도, 청결도, 환기 상태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한 전용 인프라가 조성됨
 - 시설 외부에는 리퍼 컨테이너에 전력을 공급하는 냉동·냉장 전원 콘센트 20개가 설치됨
 - 조지아항만청(GPA, Georgia Ports Authority)은 해당 시설이 부패성 화물의 신속한 처리 및 식품 안전 기준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함
-  신규 시설은 서배너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화물 부문 중 하나인 냉장 화물의 처리·검사 역량을 지원함

 - 서배너항의 냉장 화물 수입량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4만 3,540 TEU로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함
 - 현재 서배너 지역에는 약 240만 ft² 규모의 냉동·냉장 저장시설이 구축됨
 - 신규 시설을 통해 항만 내에서 냉동·냉장 화물의 직접 검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 저온물류망과의 연계성이 강화될 것으로 분석됨
-  이번 개장은 세관 운영시설의 가든시티터미널(Garden City Terminal) 내 이전·확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됨

 - 확장 시설은 미국 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와 미국 어류·야생동물관리국(U.S. Fish and Wildlife Service) 등 연방기관의 검사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임

신현수 연구원

051-797-4679, hynsoo215@kmi.re.kr

27) Container News(2026.06.10.), <https://container-news.com/u-s-customs-to-open-chilled-cargo-inspection-facility-at-port-of-savannah>(2026.06.25. 검색)

4 조지아항만청, 서배너항 항로 개선 프로젝트 추진²⁸⁾

-  GPA는 2026년 6월 2일 서배너항의 항로 수심 확대 및 선박 양방향 통항을 위한 교행 구간 설치 방안을 검토하는 연구 계획을 발표함
 - 이번 연구는 2024년 수자원개발법(Water Resources Development Act)에 따라 승인됐으며, 미 의회의 2026 회계연도 예산에서 초기 연구비 50만 달러를 배정받음
 - GPA는 수자원개발법 제203조에 따라 미 육군 공병단(USACE, U.S. Army Corps of Engineers)과 협력해 항로 수심 확대 및 선박 교행 구간 설치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  현재 기항 중인 1만 6천 TEU 이상 선박의 통항 여건을 개선하고, 향후 미국 동부 연안에 투입될 대형 선박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됨
 - 서배너항에는 1만 6천 TEU 이상 선박이 기항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항로 설계 당시 수용 대상으로 설정한 선박 규모의 약 2배에 해당함
 - 이번 연구에서는 서배너항의 시장수요를 평가, 향후 가장 일반적으로 기항할 선박 규모를 전망하고, 이를 항로 개선 계획의 설계기준 선박급으로 설정할 예정임
-  항로 수심 확대 및 교행 구간 설치 시, 대형 선박의 화물 적재량 증대 및 조석에 따른 통항 지연 완화, 선박 처리시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됨

신현수 연구원

051-797-4679, hynsoo215@kmi.re.kr

28) Georgia Ports(2026.06.02.), <https://gaports.com/press-releases/georgia-ports-launches-new-harbor-deepening-study>(2026.06.25. 검색)

5 APM Terminals, 브라질 수아페항 완전 전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완공²⁹⁾

- 덴마크 해운사 머스크(Maersk) 자회사 APM Terminals은 브라질 페르남부쿠주 수아페항(Port of Suape)에 중남미 최초의 완전 전동화 컨테이너 터미널을 완공함
 - 투자 규모는 약 3억 5천만 달러로 추산되며, 수아페항만단지(Suape Port Complex)의 컨테이너 처리능력을 55% 확대하도록 설계됨
 - 신규 터미널의 면적은 약 49만 5천 m², 안벽 길이 430m, 최대 수심은 15.5m이며, 운영 초기 연간 최대 40만 TEU를 처리할 예정임
- 브라질 북동부 지역의 항만 처리능력과 주요 해외시장 간 물류 연결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 수아페항 최고경영자는 수아페항만단지의 처리능력 확대는 브라질 남부와 남동부에 집중된 물류 기능을 분산하고, 페르남부쿠주의 글로벌 교역 거점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함
 - APM Terminals은 세아라주 페생항(Port of Pecém)에서도 20년 이상 터미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수아페항과 페생항을 기반으로 브라질 북동부 지역의 사업 기반을 확대할 예정임

신현수 연구원

051-797-4679, hynsoo215@kmi.re.kr

29) APM Terminals(2026.06.12.), <https://www.apmterminals.com/en/news/news-releases/2026/260612-APMTerminals-delivers-Suape-Brazil>(2026.06.25. 검색)

4) 유럽



① DP World, 루마니아 콘스탄차항 SMR 타당성 조사 착수³⁰⁾

- 글로벌 해운·물류기업 DP World가 프랑스 원자력·대체에너지청(CEA) 등과 함께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루마니아 콘스탄차항(Port of Constanța)의 장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함
 - DP World는 이번 조사를 통해 2030년부터 2050년까지 콘스탄차항의 예상 에너지 수요를 모형화하고, 저탄소 에너지시스템 및 원자력 기반 해결책의 기술적·전략적·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할 계획임
 - CEA의 SMR 설계·원자력 안전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 기준과 항만 인근 지역사회에 대한 고려 사항도 검토할 예정임
- 항만 전동화 및 산업활동 확대로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저탄소 에너지 공급 방안을 검토함
 - DP World는 전동식 항만장비, 육상전원공급, AI 데이터센터, 주거용 난방 및 산업활동 확대로 기존 에너지시스템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이번 조사를 통해 SMR이 항만 운영 및 인근 산업활동에 지속적인 저탄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계획임
 - 조사 결과는 향후 콘스탄차항 에너지 인프라 개발에 관한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될 예정임
 - 이번 조사는 지난해 영국 항만의 원자력 활용 MOU에 이은 것으로, DP World의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친 원자력 에너지 검토의 일환임

신현수 연구원

051-797-4679, hynsoo215@kmi.re.kr

30) DP World(2026.06.05.), <https://www.dpworld.com/en/news/dp-world-launches-nuclear-energy-study-at-port-of-constantia-in-romania>(2026.06.25. 검색)

2 로테르담항, 내륙수로선 터미널 간 자율 운항 실증 완료³¹⁾

로테르담항만청(Port of Rotterdam Authority)은 실제 운영 중인 항만 환경에서 내륙수로선의 터미널 간 자율 운항 실증을 완료함

- 실증 선박은 네덜란드 운송사 HTS Group의 MS 레티티아(MS Letitia)로 마스블락테(Maasvlakte)의 아말리아하펜(Amaliahaven)에서 출발해 발하펜(Waalhaven)까지 자율 운항함
- 본 선박은 다른 선박들이 정상적으로 운항하는 가운데 이안, 항만·하천 항행, 주변 선박 탐지·회피 및 접안 등의 조종을 자율적으로 수행함
- 운항 전 과정에서 선내 시스템은 주변 환경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인근 선박의 움직임을 탐지하고, 필요한 경우 충돌 회피 조치를 수행함

이번 실증은 항만 내 혁신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MAGPIE(sMArt Green Ports as Integrated Efficient multimodal hub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됨

- 로테르담항이 총괄하는 MAGPIE에는 45개 기관이 참여해 해운·내륙수운·철도·도로운송 분야의 친환경에너지, 디지털화 및 지속가능한 물류 기술을 개발 및 시험 중임
- 프로젝트 참여기관인 알파트론 마린(Alphatron Marine), 아르고닉스(Argonics) 및 아르고나브(Argonav)는 이번 실증에 적용된 기술 일부를 내륙수로선용 운항지원 제품에 통합할 예정임
- 로테르담항만청은 자율운항 기술이 내륙수운의 유연성·효율성·신뢰성을 제고하고 화물 증가에 대응해 배후 운송 기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함

신현수 연구원

051-797-4679, hynsoo215@kmi.re.kr

31) Port of Rotterdam(2026.06.11.), <https://www.portofrotterdam.com/en/news-and-press-releases/rotterdam-reaches-milestone-autonomous-shipping-inland-vessel-sails>(2026.06.25. 검색)

3 EU, 탄소배출비용 이중 부과 방지 방침 제시³²⁾

-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선사들이 EU와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규제에 따라 탄소배출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힘
 - EU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cheme)와 IMO가 준비 중인 넷제로 프레임워크(Net-Zero Framework)의 연계 방식이 아직 불명확한 가운데, 동일한 성격의 탄소배출 비용이 이중 부과되지 않도록 할 방침임
 - EU 집행위원회는 신규 탈탄소 조치가 공정하고 실행 가능해야 하며, 유럽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설명함
 - 또한, ETS를 통해 조성된 수입은 해운산업의 탈탄소화 지원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친환경연료 도입 및 추진 시스템 개발 등 미래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함

신현수 연구원

051-797-4679, hynsoo215@kmi.re.kr

32) Shipping Telegraph(2026.06.09.), <https://shippingtelegraph.com/environment-news/brussel-says-shipping-companies-will-not-face-double-carbon-charges>(2026.06.25. 검색)

5) 오세아니아



① 호주 멜버른항, 2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 기록³³⁾

- 📍 멜버른항(Port of Melbourne)이 세계 경제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2025년 350만 TEU를 처리하며 2년 연속 최고 기록을 경신함
 - 2025년 적컨테이너 물동량은 수입 137만 TEU, 수출 66만 2천 TEU를 기록했으며, 공컨테이너가 전체 물동량의 28%를 차지함
 - 멜버른항은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불균등한 세계 수요에도 공급망 회복탄력성이 2025년 교역 실적을 견인했으며, 관세 변동이 물동량에 미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함
- 📍 동남아시아가 전체 수출 컨테이너 비중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며 멜버른항의 최대 수출 지역으로 부상함
 - 국가별로는 중국, 일본 및 뉴질랜드가 주요 수출 대상국에 포함됐으며, 對미 수출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함
- 📍 수입 측면에서는 물가상승률 완화와 가계소득 회복으로 컨테이너화 소비재 수입이 증가하고, 미국 수요 약화로 다른 시장으로 전환된 중국산 제품의 유입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중국發 수입 컨테이너가 44만 1천 TEU로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 미국 및 태국이 뒤를 이음
 - 자동차 수입은 높은 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했으며, 중국이 태국을 제치고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자동차 수입 원산지로 부상함

신현수 연구원

051-797-4679, hynsoo215@kmi.re.kr

33) Port Technology International(2026.06.16.), <https://www.porttechnology.org/port-of-melbourne-hits-3-5-million-teus-in-2025>(2026.06.25. 검색)

6) 아프리카



1 잔지바르, 5억 6천만 달러 규모 자유항 개발계획 추진³⁴⁾

- ▶ 잔지바르 정부는 서해안 망가프와니(Mangapwani)에 전용 자유항 및 물류 구역을 조성하는 개발계획을 공개함
 - 총사업비는 약 5억 6천만 달러로 추산되며, 개발계획에는 화물 처리시설과 물류단지, 창고 및 관련 산업 시설 조성이 포함됨
- ▶ 망가프와니는 잔지바르의 기존 항만시설보다 대규모 해양 인프라를 수용하기에 적합한 전략적 입지로 평가됨
 - 잔지바르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잔지바르를 동아프리카·중동·인도양 교역을 지원하는 관문으로 육성할 계획임
 - 향후 다르에스살람항·몸바사항·지부티항 등 기존 역내 물류거점들과 경쟁하기 위해 주요 동서 항로와 연계된 환적 수요 확보도 추진할 예정임

신현수 연구원

051-797-4679, hynsoo215@kmi.re.kr

34) Splash(2026.06.16.), <https://splash247.com/zanzibar-plans-560m-free-port-project>(2026.06.25. 검색)

03 품목 및 산업 동향

1) 컨테이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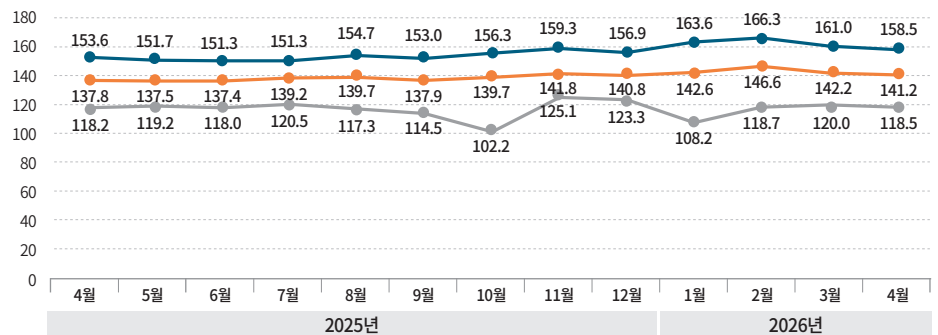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

— Total
— China Index
— North Range Index

① 2026년 4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 전년 동월 대비 전체·중국·유럽 모두 증가

2026년 4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는 전월 대비 0.7% 감소, 전년 동월 대비 2.5% 증가한 141.2p를 기록함

- 항만물동량 지수는 2025년 하반기부터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2026년 3월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중국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 지수도 2025년 하반기부터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2026년 3월부터 하락세로 전환되어 4월 158.5p를 기록함
- 유럽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 지수는 2025년 10월과 2026년 1월에 큰 하락을 보였으며, 2026년 2월부터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4월 118.5p를 기록함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율(%)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Total	137.8	137.5	137.4	139.2	139.7	137.9	139.7	141.8	140.8	142.6	146.6	142.2	141.2	-0.7	2.5	
China Index	153.6	151.7	151.3	151.3	154.7	153.0	156.3	159.3	156.9	163.6	166.3	161.0	158.5	-1.5	3.2	
North Range Index	118.2	119.2	118.0	120.5	117.3	114.5	102.2	125.1	123.3	108.2	118.7	120.0	118.5	-1.3	0.2	

주: 2015=100, Total 및 North Range Index는 계절 및 근무일 조정

자료: ISL(2026.05.27.), [https://www.isl.org/media/111\(2026.06.26. 검색\);](https://www.isl.org/media/111(2026.06.26. 검색);) [https://www.isl.org/media/110\(2026.06.26. 검색\);](https://www.isl.org/media/110(2026.06.26. 검색);)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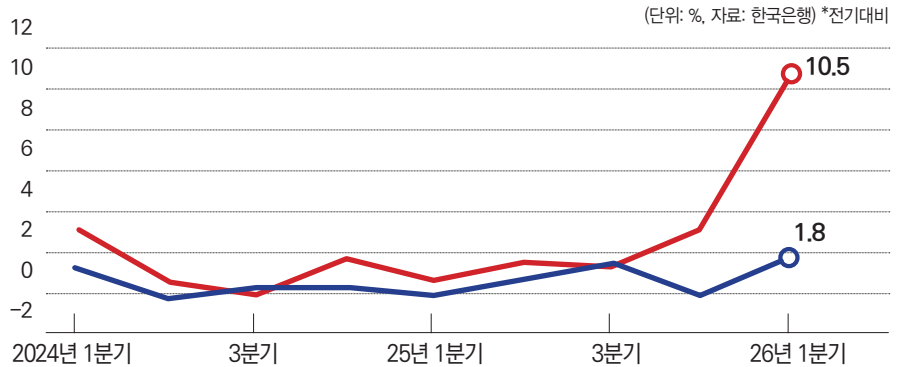
2 명목 경제성장률, 50년 만에 두 자릿수 기록³⁵⁾

한국은행은 2026년 1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0.5%를 기록하며 50년 만에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고 발표함

- 1976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명목 GDP 성장률이 10%를 상회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17.1% 증가함
-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출 디플레이터는 전년 동기 대비 23.5% 상승한 반면 내수 디플레이터는 2.1% 상승에 그침
- 한국은행은 국내 물가 상승보다 수출기업의 수익성 개선이 명목 성장률 상승의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함
-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8%로 기존의 속보치보다 0.1%p 상향 조정됨

우리나라 실질 및 명목 GDP 추이

— 명목 GDP
— 실질 GDP



자료: 아시아경제(2026.06.09.),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60910241654313>(2026.06.26. 검색)

반도체 호황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으로 국민소득과 성장 기반이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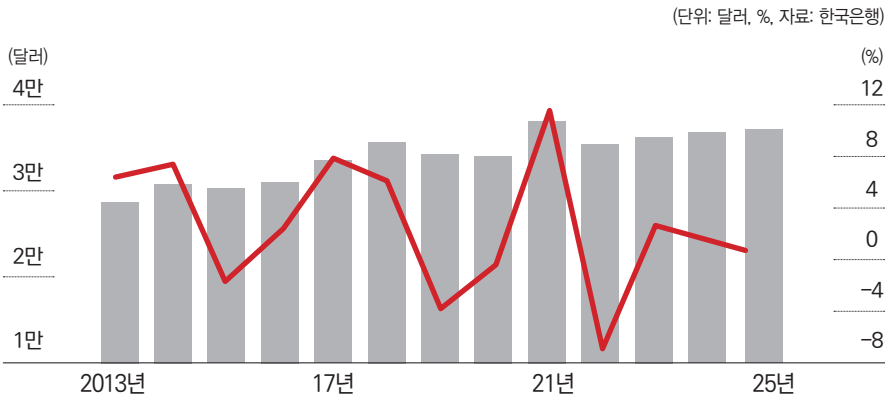
-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년 동기 대비 13.2% 증가하며 실질 GDP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으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 분기 대비 9.2% 증가해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증가율을 기록함
- 한국은행은 수출재 가격 상승이 원유 등 수입재 가격 상승을 웃돌면서 교역조건이 개선됐다고 설명함
- 기업 수익성 개선에 따른 세수 확대와 투자 여력 확대로 연간 명목 성장률과 거시건전성 지표 개선 가능성이 제시됨

35) 아시아경제(2026.06.09.),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60910241654313>(2026.06.26. 검색)

02 국외 항만 동향

1인당 명목
국민소득(GNI) 추이 및
증감률

국민소득(좌)
증감률(우)



자료: 아시아경제(2026.06.09.),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60910241654313>(2026.06.26. 검색)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3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 전망³⁶⁾

-  세계은행(WB, World Bank)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2.9%에서 2.5%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함
 - WB는 중동 분쟁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확대를 주요 요인으로 제시했으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영향이 2026년 7월 이후 완화된다는 가정 아래 브렌트유 평균 가격을 배럴당 94달러로 전망함
 - 미국은 2.2%, 일본은 0.7%, 중국은 4.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와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도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를 전망함
 - OECD는 2026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2.8%로 하향 조정했으며, IMF는 세계경제가 부정적 시나리오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하고 2026년 7월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임
 - 시장에서는 향후 글로벌 성장률 전망이 추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됨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36) 이투데이(2026.06.12.), <https://www.etoday.co.kr/news/view/2593118>(2026.06.26. 검색)

2) 양곡



1 2026년 5월 CBOT 곡물 가격, 밀·대두·옥수수 동반 상승

- 2026년 5월 시카고선물거래소(CBOT) 기준 주요 곡물 가격은 밀이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대두는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으며, 옥수수도 소폭 상승하며 세 품목이 모두 전월 대비 상승함
 - 밀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5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감
 - 대두는 전월의 소폭 하락에서 벗어나 다시 상승 전환되었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도 두 자릿수 상승세를 유지함
 - 옥수수는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하며 보험권을 벗어났고, 전년 동월 대비로도 상승 전환됨
- 밀 가격은 233달러/톤으로 전월(221달러/톤) 대비 5.5%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20.9% 상승한 수준임
 - 전월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되며 5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 가격 회복세가 강화됨
 - 중동 정세 불안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공급 불확실성을 자극하며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 대두 가격은 438달러/톤으로 전월(429달러/톤) 대비 2.2%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13.5% 상승한 수준임
 - 전월의 소폭 하락에서 벗어나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며, 주요 곡물 중 전년 동월 대비 상승 폭은 여전히 가장 큰 수준임
 -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공급 우려와 견조한 수요가 가격 강세를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됨
- 옥수수 가격은 181달러/톤으로 전월(178달러/톤) 대비 1.9%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함
 - 보험권을 벗어나 소폭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도 하락세에서 상승 전환됨
 - 그간 타 품목 대비 더디던 가격 회복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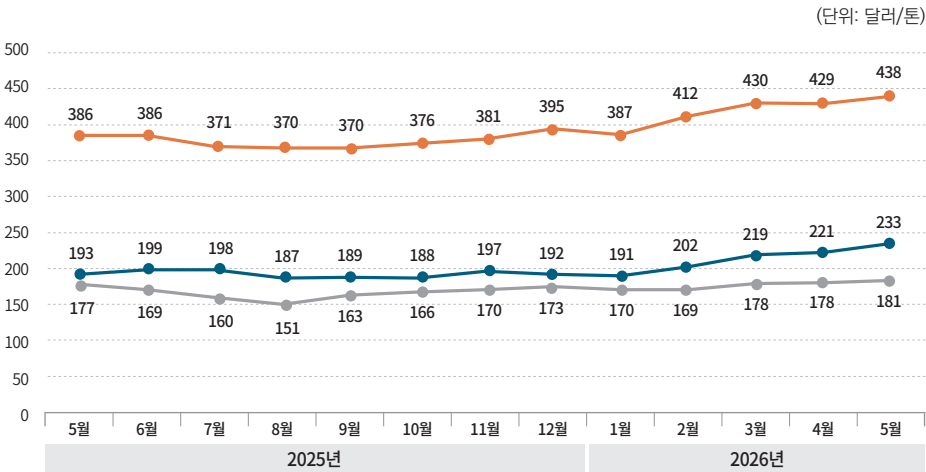
(단위: 달러/톤)

세계곡물 가격동향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율(%)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밀	193	199	198	187	189	188	197	192	191	202	219	221	233	5.5	20.9
대두	386	386	371	370	370	376	381	395	387	412	430	429	438	2.2	13.5
옥수수	177	169	160	151	163	166	170	173	170	169	178	178	181	1.9	2.6

세계곡물 가격 추이

- 밀
- 대두
- 옥수수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https://www.krei.re.kr/grain/page/242>(검색일: 2026.06.25.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 고회율·국제곡물가 강세로 국내 사료값 인상 지속³⁷⁾

❖ 환율 상승과 국제곡물 가격 강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사료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잇따라 인상함

- 주요 사료업체들은 2026년 들어 5월까지 사료제품 가격을 1kg당 40~70원 인상했으며, 카길애그리퓨리나는 40~70원, 천하제일사료는 50원, 우성사료·CJ사료는 40원, 팜스코는 30원 이상 올렸고, 농협사료도 6월 15일 39원 인상함
-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1,400원대에 진입한 이후 2026년 6월 5일 1,560원대까지 상승했으며, 6월 16일 1,510원대로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함

❖ 국제곡물 가격 상승으로 사료용 곡물 수입단가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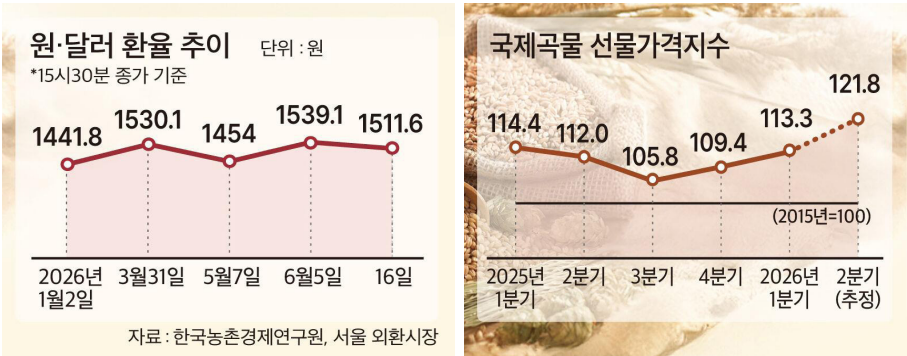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6월 국제곡물 관측에 따르면 2026년 2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는 121.8로 추정되며, 직전 분기(113.3) 대비 7.5%, 전년 동기(112.0) 대비 8.8% 상승함
- 2분기 원화 기준 사료용 곡물 수입단가지수는 전 분기(127.6) 대비 6.1%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바이오연료 수요 확대와 미국 내 옥수수 생산량 감소 등으로 3분기에도 수입단가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밝힘
- 사료업계는 엘니뇨 여파로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사료용 어분 원료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함

❖ 축산업계는 일시적 지원을 넘어 항구적인 생산비 안정대책 마련을 요구함

- 농협사료는 지난 5개월간 가격 인상을 유예하며 경영적자를 감내해 왔으나 경영압박 누적으로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으며, 2022년 12월부터 7차례에 걸쳐 사료값을 1kg당 115원 인하한 바 있음
- 전국한우협회는 한우 출하 시 손실이 한 마리당 100만 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가 농가·농협과 함께 생산비 부담 완화 해법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함
- 축산업계는 고회율·고원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시적 용자 지원은 농가부채만 늘릴 수 있다며, 항구적인 생산비 안정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37) 농민신문(2026.06.18.), <https://www.nongmin.com/article/20260617500640>(2026.06.25. 검색)

원·달러 환율 및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 추이



자료: 농민신문(2026.06.18.), <https://www.nongmin.com/article/20260617500640>(2026.06.25.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3) 시멘트



1 2026년 5월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 보합세 지속

2026년 5월 포틀랜드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는 158.3p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며 6개월 연속 보합세를 이어갔고, 고로슬래그 시멘트도 153.3p로 장기 안정세를 지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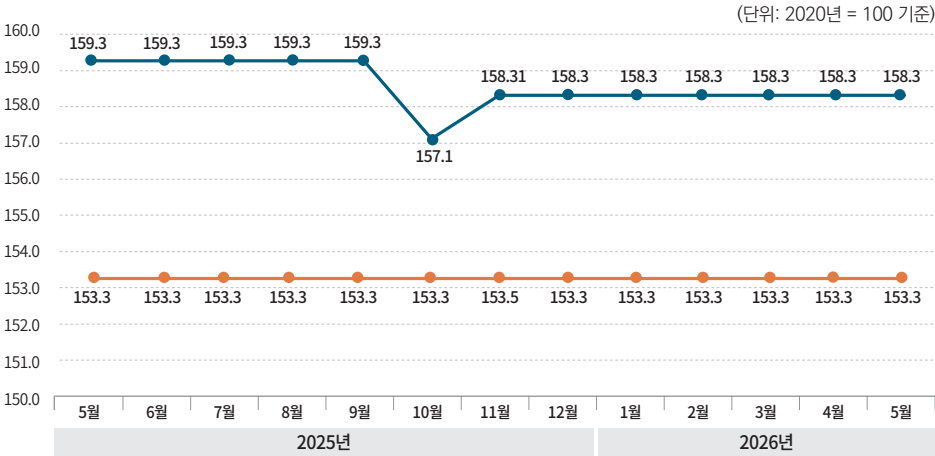
- 포틀랜드 시멘트는 2025년 10월 157.1p로 일시 하락한 이후 11월 반등을 거쳐 158.3p 수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6개월째 이어가고 있음
- 전월 대비 0.0%로 변동이 없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는 0.6% 하락했으나 전월(-1.0%) 대비 하락 폭이 축소되며 약세 기조가 다소 완화된

고로슬래그 시멘트는 장기간 가격 변동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함

- 2025년 2월 이후 16개월 연속 153.3p 수준을 유지하며 변동성 없는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음
- 전월 대비 및 전년 동월 대비 모두 0.0%로 가격 안정세가 지속됨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

● 포틀랜드
● 고로슬래그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율(%)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포틀랜드	159.3	159.3	159.3	159.3	159.3	157.1	158.3	158.3	158.3	158.3	158.3	158.3	158.3	0.0	-0.6
고로슬래그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0.0	0.0

자료: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earch/search.do\(2026.06.25. 검색\)](https://kosis.kr/search/search.do(2026.06.25. 검색))

2 시멘트 수출 10여 년 새 절반으로 감소, 내수 산업 고착화 심화³⁸⁾

-  **한때 연간 1,000만 톤에 육박했던 시멘트 수출이 10여 년 새 전성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며 내수 중심 산업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

 -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2011년 시멘트 총수출 물량은 996만 톤으로, 클링커(548만 톤)와 시멘트 완제품(448만 톤)을 합한 수치이며 2014년에도 953만 톤을 기록함
 - 클링커는 시멘트 반제품으로 석고 등을 넣어 분쇄하면 시멘트 완제품이 됨
 - 시멘트 수출은 2015년 735만 톤, 2016년 504만 톤으로 감소했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64만 톤, 208만 톤, 296만 톤으로 200만 톤대까지 줄었다가 2025년 460만 톤으로 일시 반등함
-  **수출 물량 감소에 단가 하락까지 겹치며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 수출은 해안 지역에 공장을 둔 쌍용C&E(동해), 삼표시멘트(삼척), 한라시멘트(옥계)가 주도하며, 이 가운데 쌍용C&E가 2024년 업계 전체 수출 물량의 79%인 234만여 톤을 수출함
 - 주요 수출국은 중국, 필리핀, 미국, 칠레 등이며, 미국 서부, 러시아 극동, 중국 연안, 동남 아시아 등으로 수출되어 옴
 - 쌍용C&E의 수출 단가는 2020년 톤당 4만 5,220원에서 2023년 6만 3,121원까지 상승했으나,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4만 4,483원, 4만 2,671원으로 하락함
-  **내수 위축과 중국산 저가 공세로 공장 가동률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임**

 - 시멘트 내수 판매량은 2018년까지 5,000만 톤을 유지했으나 시장 침체로 2025년 3,760만 톤까지 떨어지며 3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함
 - 운송비 상승과 중국산 저가 시멘트의 가격 공세로 수출 판로까지 막히면서 공장 가동률 하락이 이어지고 있으며, 쌍용C&E의 클링커 기준 가동률은 2024년 82.3%에서 2026년 1분기 69.8%까지 하락함
 - 삼표시멘트의 가동률은 클링커 65.9%, 시멘트 49.7%에 그쳐 시멘트의 경우 생산 능력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음
 - 업계는 내수가 위축되면 공장 가동을 유지하기 위해 수출이라도 나서야 하는 구조라며, 환경 규제 강화와 원·달러 환율 1,500원대 고착화에 따른 유연탄·석회석 등 수입 원자재값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함

38) 메트로신문(2026.06.18.),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60618500186>(2026.06.26. 검색)

국내 시멘트 수출량 추이



자료:메트로신문(2026.06.18.),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60618500186>(2026.06.26.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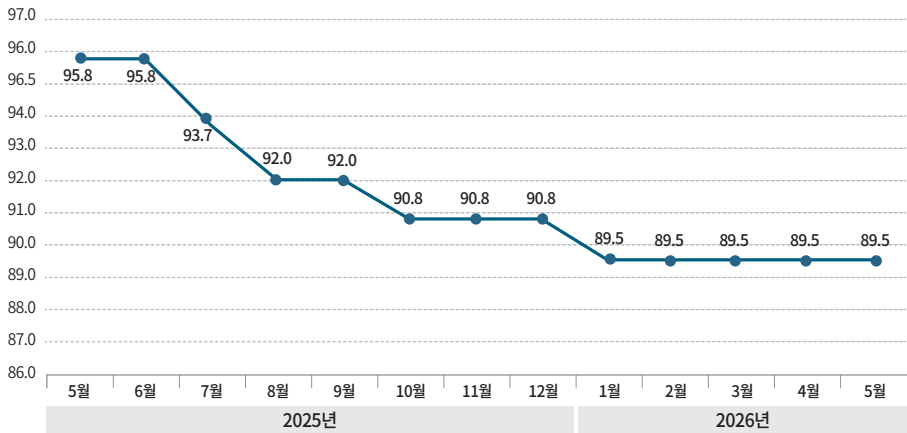
4) 모래



1 2026년 5월 생산자물가지수 전월과 동일한 89.5 기록

- 2026년 5월 모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89.5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보험세를 유지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6.6% 감소함
- 2026년 1월 이후 5개월 연속 89.5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흐름이 지속되고 있음
- 2025년 6월(95.8) 이후 이어진 하락세는 2026년 1월부터 멈추고 안정적인 흐름으로 전환됨
- 전년 동월 대비로는 6.6% 하락하며 약세 기조가 지속되고 있으나, 전월(-8.6%) 대비 하락 폭이 축소되며 약세 흐름이 다소 완화됨

(단위: 2020년 = 100 기준)



모래 생산자물가지수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율(%)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모래	95.8	95.8	93.7	92.0	92.0	90.8	90.8	90.8	89.5	89.5	89.5	89.5	89.5	0.0	-6.6

자료: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earch/search.do\(2026.06.26](https://kosis.kr/search/search.do(2026.06.26)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 천연골재 고갈로 수급난 심화, 순환골재 의무사용 확대 추진³⁹⁾

-  정부는 양질의 천연골재 고갈에 따른 골재 수급난에 대응해 순환골재 의무사용을 주택사업까지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정부는 도로·산업단지 조성 등에 주로 쓰이던 순환골재를 재개발·주택건설 등 주택사업에까지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
 - 이는 양질의 천연골재가 사실상 고갈되면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가공한 순환골재로 수요를 전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반영된 것임
-  고품질 천연골재 채취량이 급감하며 수급난이 만성화되고 있음

 - 강모래는 1990년대 후반 무분별한 채취에 따른 환경 파괴 논란으로 사실상 채취가 중단되었고, 이를 대체하던 바닷모래도 해양 생태계 훼손 문제로 채취량이 엄격히 제한됨
 - 고품질 골재로 분류되는 하천골재 채취량은 2018년 266만^m³(전체의 1.1%)를 기록한 이후 1% 선을 넘지 못했으며, 2024년에는 0.3%(54만^m³)까지 감소함
 - 바다골재 채취량도 2015년 2,378만^m³(전체의 11.7%)에서 2024년 536만^m³(2.7%)로 급감하며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임
-  3기 신도시·정비사업 확대로 골재 수요가 늘면서 순환골재 품질관리가 핵심 과제로 부각됨

 - 3기 신도시 건설 본격화와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대기하면서 막대한 양의 골재 투입이 예상되어 순환골재 활용이 불가피한 상황임
 - 다만 주거시설 구조물에 폐자재를 재가공한 골재가 사용될 경우 건축물의 내구성과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업계는 천연골재에 버금가는 철저한 품질관리와 검증 체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 정부는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그간 이원화되어 있던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를 한국산업표준(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 인증으로 통합·일원화하여 품질관리를 강화할 방침임

39) 대한경제(2026.05.29.),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05281346139880311>(2026.06.26. 검색)

주요 연도별
골재채취 현황



자료: 대한경제 (2026.05.29.),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05281346139880311> (2026.06.26.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5) 석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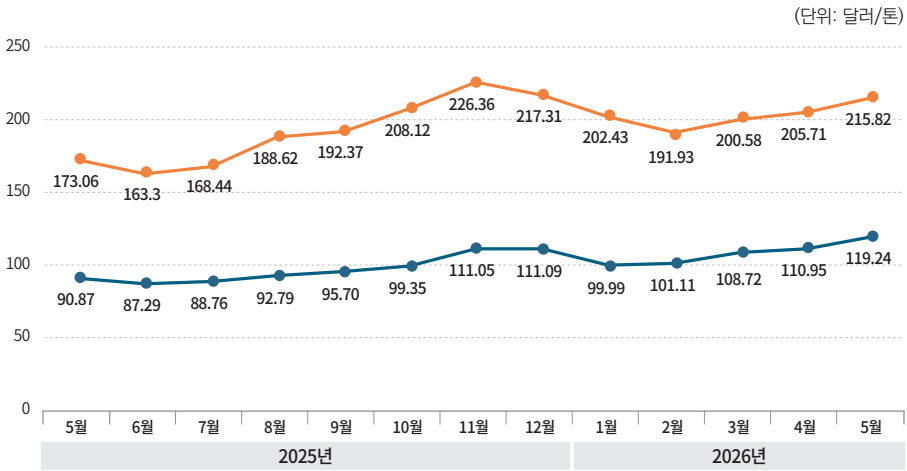


석탄 가격 추이

원료탄(Thermal)
점결탄(Coking)

1 2026년 5월 석탄 가격, 원료탄·점결탄 동반 상승세 지속

- 2026년 5월 원료탄 가격은 전월 대비 7.5% 증가한 톤당 119.24달러, 점결탄 가격은 전월 대비 4.9% 증가한 톤당 215.82달러를 기록함
 - 원료탄은 2026년 1월 99.99달러/톤 저점 이후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전년 동월 대비 31.2% 증가함
 - 점결탄은 2026년 2월 191.93달러/톤 저점 이후 3개월 연속 반등하고 있으며, 전년 동월 대비 24.7% 증가함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율(%)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원료탄	90.87	87.29	88.76	92.79	95.70	99.35	111.05	111.09	99.99	101.11	108.72	110.95	119.24	7.5	31.2
점결탄	173.06	163.3	168.44	188.62	192.37	208.12	226.36	217.31	202.43	191.93	200.58	205.71	215.82	4.9	24.7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RsrcPrice/IronOre\(2026.06.25.검색\)](https://www.komis.or.kr/Komis/RsrcPrice/IronOre(2026.06.25.검색))

박세리 전문연구원
051-797-4690, seri.park@kmi.re.kr

2 인도네시아, 2026년 석탄 수출 구조 재편 본격화⁴⁰⁾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6년 5월 세계 최대 해상 열탄 수출국의 수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정책 패키지를 발표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6년 석탄 생산 목표를 전년 대비 약 24% 감축하면서 공급 측 사전 타이팅을 본격화함
- 2026년 4월부터 적용된 신규 석탄 수출세는 인도네시아 석탄의 국제 최저 비용을 구조적으로 상향 조정함
- 2026년 6월 1일 시행된 외환 수익 의무 예치 제도에 따라 천연자원 수출기업은 USD 수익 전액을 인도네시아 국영은행에 입금해야 하며, 운전자본, 헤지 전략, 환율 리스크 관리 전반에 영향이 발생함
- 국부펀드 DSI가 통합 관리 주체로 부상하면서 글로벌 벤치마크 이하 가격으로 체결된 기존 계약의 재협상 가능성이 제기됨
- 인도네시아가 글로벌 해상 열탄의 약 50%를 공급하는 구조에서 한국·일본은 LNG 공급 차질과 인도네시아 의존 동시 노출로 가장 큰 단기 충격 위험에 노출됨

박세리 전문연구원

051-797-4690, seri.park@kmi.re.kr

40) Discovery Alert(2026.05.22.), <https://discoveryalert.com.au/indonesia-coal-export-shake-up-prices-supply-2026-market/>(2026.06.20.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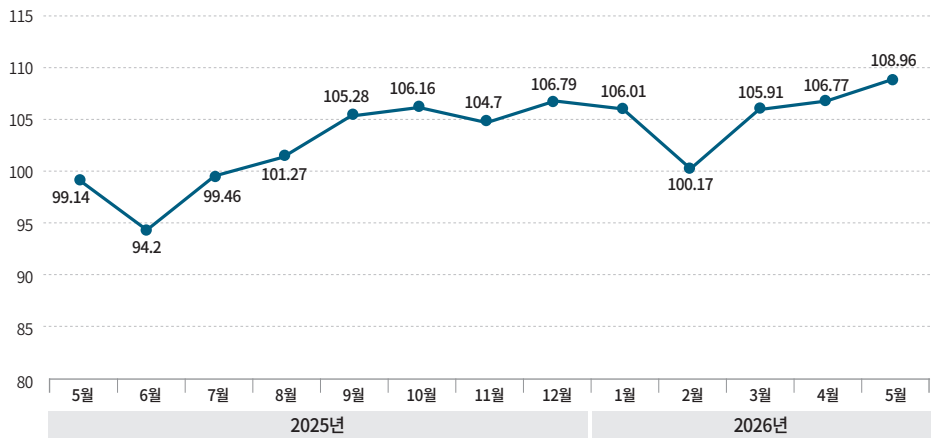
6) 철광석



철광석 가격 추이

1 2026년 5월 철광석 가격, 세 달 연속 상승

- 2026년 5월 철광석 가격(호주산 62%, 중국 CNF)은 전월 대비 2.1% 상승한 톤당 108.96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 9.9% 증가함
- 2026년 2월 톤당 100.17달러 저점 이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조사 기간 내 최고치를 경신함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율(%)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철광석	99.14	94.2	99.46	101.27	105.28	106.16	104.7	106.79	106.01	100.17	105.91	106.77	108.96	2.1	9.9

주: 62% 분광 중국 도착 기준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RsrcPrice/IronOre\(2026.06.24. 검색\)](https://www.komis.or.kr/Komis/RsrcPrice/IronOre(2026.06.24. 검색))

박세리 전문연구원
051-797-4690, seri.park@kmi.re.kr

2 2026년 하반기 철강 침체 흐름 완화·내수와 생산 모두 증가 전환 전망⁴¹⁾

- 산업연구원(KIET)은 2026년 하반기 국내 철강 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 0.3%, 생산이 0.7% 증가하면서 최근 2년 연속 이어진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함
- 2026년 하반기 철강 수요는 수요산업의 소폭 회복에 힘입어 실수요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수입재 감소 영향으로 명목소비는 전년 수준에 머무는 흐름을 보임
- 2026년 하반기 철강 생산은 글로벌 철강 수요 회복세가 제한적이거나 증가세로 전환되고, 비용 상승, 수입규제 강화, 공급망 재편 등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이 견인 요인으로 작용함
- 2026년 연간 철강 수출은 전년 대비 0.4% 증가한 2,840만 톤 규모를 기록할 전망으로, 주요국 무역보호조치 강화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회복 흐름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평가됨
- 2026년 연간 철강 생산은 0.2% 증가로 전환되면서 2024~2025년 2년 연속 이어진 감소세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 2026년 하반기 주요 지표 개선이 2027년 업황 회복 기대를 확대하고 있으나, 중동 전쟁 장기화, 미국 무역법 301조 등 추가 수입규제 가능성은 회복 지연 요인으로 거론됨

박세리 전문연구원

051-797-4690, seri.park@kmi.re.kr

41) 산업연구원, 2026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2026.05.26.), [https://www.kiet.re.kr/trends/ecolookView?ecolook_no=56&key=&sval=\(2026.06.20. 검색\)](https://www.kiet.re.kr/trends/ecolookView?ecolook_no=56&key=&sval=(2026.06.20.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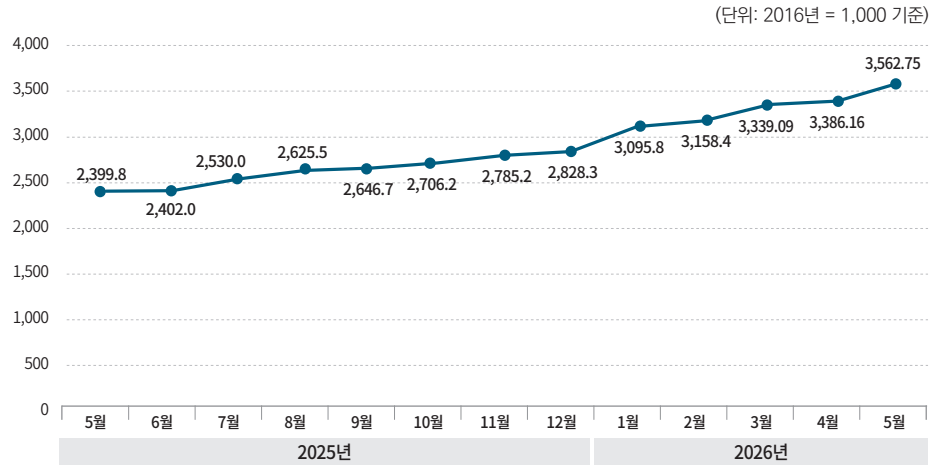
7) 기타광석



광물종합지수 추이

1 2026년 5월 광물종합지수, 전월 대비 5.2% 상승하며 오름 폭 확대

2026년 5월 광물종합지수는 3,562.75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48.5% 급등, 2025년 하반기 이후 13개월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며 3,500선을 처음 돌파하였음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율(%)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광물종합 지수	2,399.8	2,402.0	2,530.0	2,625.5	2,646.7	2,706.2	2,785.2	2,828.3	3,095.8	3,158.4	3,339.09	3,386.16	3,562.75	5.2	48.5

주: 광물종합지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전반적인 자원시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내 수입금액 20위권 이내 광종 중 산업전략적 중요광물(동, 니켈, 아연, 리튬 등) 15개를 선정하여 자체 개발한 종합지수로서, 기준시점은 2016년 1월을 1,000으로 함. 매일 발표하며 월별 실적은 일별 데이터의 평균값을 산출함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MnrlIndc/IndxMin>(2026.06.24. 검색)

박세리 전문연구원

051-797-4690, seri.park@kmi.re.kr

2 핵심광물 공급망 미·중 충돌 본격화·G7 차원 대응 부상⁴²⁾

-  중국 자연자원부는 2026년 6월 15일 광물자원법 실시조례를 발효하면서 광산 개발·유통·비축 전반에 대한 국가 통제 체계를 본격 가동함
 - 실시조례는 제품 비축, 생산능력 비축, 산지 비축으로 구성된 3중 비축 체계를 명문화했으며, 국가 지정 광산은 5년 이상 채굴·개발이 전면 금지됨
 - 공급 위기 시 국가가 광물 가공·운송을 직접 지휘하고 민간 비축 시설과 물류 수단을 강제 징용할 수 있으며, 광물 안보 위기 시 자연보호구역 내 전략광물 탐사·채굴도 허용됨
 - 적용 대상 광물은 희토류를 넘어 갈륨, 게르마늄, 흑연, 안티몬, 텅스텐 등 첨단 산업 필수 광물 전반으로 확장됨
-  이에 미국이 G7 정상회의에서 핵심광물 가격 하한제 도입을 제안하면서 우방국 간 이견 속에서도 서방 차원의 맞대응 기조가 가시화됨
 - 미국은 핵심광물 가격 하한제 도입을 제안했으나 유럽 측이 비용 부담과 미국 AI 기반 가격 산정 체계 종속 우려를 들어 반발하면서 서방 내 대응 방향에 이견이 노출됨
 - 일본 총리도 G7 회의에서 중국의 대일 경제 압박과 일본형 희토류 수입 통제 강화를 언급하면서 공동 대응을 촉구함
 - 리튬, 니켈, 코발트,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배터리·반도체 업계는 중국발 공급 차단 우려와 G7 가격 하한제 도입 시 조달 단가 구조적 상승이라는 이중 리스크에 노출됨

박세리 전문연구원

051-797-4690, seri.park@kmi.re.kr

42) 더센뉴스(2026.06.17.), <https://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0599>(2026.06.21. 검색)

8) 목재



1 2026년 1~5월 국내 목재 주요 품목 수입 동향

- 2026년 1~5월 국내 목재 수입은 주요 품목 전반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 원목(60만 2천㎥, -2.7%)과 합판(54만 3천㎥, +1.1%)은 감소 폭이 완화되거나 소폭 증가로 전환된 반면, 제재목(48만 8천㎥, -18.1%)과 성형목재(2만 2,074톤, -25.2%)는 두 자릿수 감소세를 이어감
 - 파티클보드는 46만㎥로 전년 동기(58만 9천㎥) 대비 22.0%, 섬유판은 7만 3천㎥로 18.9% 각각 감소하며 가공용 목재 품목의 수입 위축이 지속됨
 - 목재펠릿은 124만 9천 톤으로 전년 동기(166만 5천 톤) 대비 25.0% 감소하며 에너지용 목재 수입도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함

국내 목재 품목별
수입현황

품목(단위)	2026년 누적 (1-5월)	2025년 누적 (1-5월)	증감률 (%)
원목(천㎥)	602	618	-2.7
제재목(천㎥)	488	596	-18.1
성형목재(톤)	22,074	29,533	-25.2
합판(천㎥)	543	537	+1.1
파티클보드(천㎥)	460	589	-22.0
섬유판(천㎥)	73	90	-18.9
목재펠릿(천 톤)	1,249	1,665	-25.0

자료: 산림청 해외목재유통정보(2026.06.23.), [https://www.forest.go.kr/kfsw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3220443&bbsId=BB SMSTR_1067&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orgId=&mn=AR01_04_02_03&component=\(2026.06.26. 검색\)](https://www.forest.go.kr/kfsw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3220443&bbsId=BB SMSTR_1067&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orgId=&mn=AR01_04_02_03&component=(2026.06.26. 검색))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미국 목재 선물 가격, 2025년 10월 이후 최고치 경신**2****— 캐나다 관세·산불로 공급 부족 지속⁴³⁾**

- 2026년 6월 16일 기준 미국 목재 선물 가격은 1,000보드피트(board feet)당 627.56달러로 전월 대비 5.83% 상승하였으며, 주택 시장 부진에도 불구하고 공급 부족이 이를 상쇄하며 2025년 10월 이후 최고치 수준을 기록함
 - 미국 국내 생산 확대만으로는 캐나다산 목재 수입 감소분을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캐나다는 여전히 미국 내 목재 소비량의 약 30%를 공급하고 있어 무역 장벽에도 불구하고 의존도가 높은 상태임
 - 미국 상무부는 캐나다산 목재에 대한 합산 관세율을 현행 35.2%에서 24.8%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추가로 부과되는 10%의 섹션 232(Section 232) 관세로 인해 실효 관세율은 여전히 35%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ritish Columbia)주는 산불·폭풍 피해로 목재 생산이 위협받자 목재 가용량 확대를 위한 긴급 조치를 도입하였으며, 이러한 생산 차질이 공급 부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43) Trading Economics(2026.06.16.), <https://tradingeconomics.com/commodity/lumber>(2026.06.16.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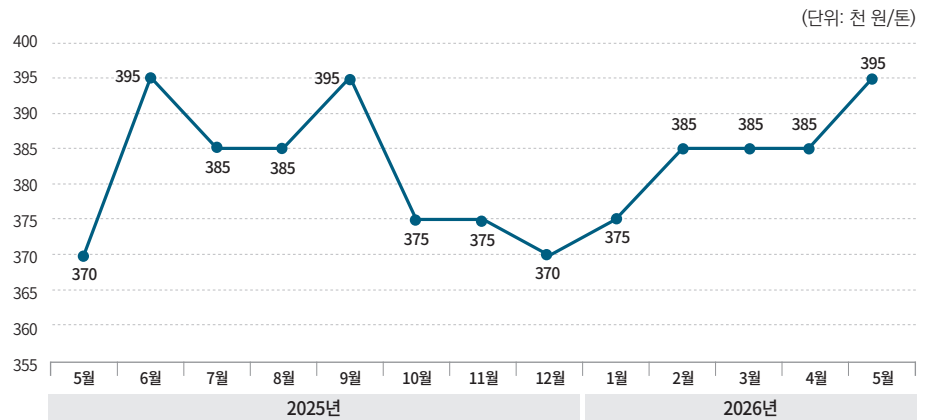
9) 고철



고철(생철) 연간 가격 추이

1 2026년 5월 국내 고철(생철) 가격, 3개월 보합 이후 반등, 39만 5천 원/톤으로 상승

- 2026년 5월 국내 고철(생철) 가격은 39만 5천 원/톤으로 전월(38만 5천 원/톤) 대비 10천 원(+2.6%) 상승하며 2026년 2월부터 이어진 3개월 연속 보합세에서 벗어나 반등함
- 전년 동월(2025년 5월, 37만 원/톤) 대비로는 2만 5천 원/톤(+6.8%) 상승하여 전년 동기 대비 상승 폭이 4월(+4.1%) 대비 확대됨
- 2025년 12월 연중 최저치(37만 원/톤) 이후 2026년 1월 37만 5천 원, 2월~4월 38만 5천 원으로 단계적 회복세를 보인 데 이어, 5월에는 2025년 6월·9월 고점 수준인 39만 5천 원에 재도달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2026.5.23.), [https://www.motir.go.kr/kor/contents/103\(2026.06.16. 검색\)](https://www.motir.go.kr/kor/contents/103(2026.06.16. 검색))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2 미국·이란 종전 합의로 국제 철스크랩 가격 하방 압력 본격화 전망⁴⁴⁾

 2026년 6월 14일 개전 107일 만에 미국·이란 종전 합의가 이루어지며 국제 철스크랩 가격이 즉각적인 하방 압력을 받기 시작함

- 국제 스크랩 가격의 기준점 역할을 하는 튀르키예(Türkiye) 시황 가격은 6월 15일 기준 톤당 400달러로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개전 전후 375달러에서 5월 둘째 주 415달러까지 10% 이상 급등한 이후 조정 국면에 진입함
- 전쟁 기간 중 최고 톤당 47달러까지 치솟았던 해상운임(미 동부-튀르키예, 드라이 벌크선 기준)은 6월 현재 43달러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전쟁 이전(30달러) 대비 여전히 10달러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유가 안정과 해상 물류 정상화 시 국제 스크랩 가격은 10~20달러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으며, 튀르키예 시황 가격이 380달러 내외로 조정될 경우 국내 중량A⁴⁵⁾ 가격은 현재 대비 15% 이상 하락한 450원/kg 수준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제기됨

 세계 2위 직접환원철(DRI, Direct Reduced Iron) 생산국이자 세계 3위 빌레트(billet) 수출국인 이란의 철강 원료·반제품 공급이 점차 정상화될 전망임

- 이란산 공급 재개 시 동남아·튀르키예 제강사들의 저가 빌레트 수입이 확대되며 스크랩 가격 추가 하락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종전 합의 직후 튀르키예항 빌레트 가격은 590달러(CFR)로 즉각 5달러 하락하며 시장의 기대가 선반영되기 시작함
- 유가 하락은 철스크랩 수집·운반 비용 하락으로도 이어질 전망으로 2026년 3월 국제 유가 100달러 돌파 이후 5년 만에 인상된 방통차⁴⁶⁾ 운반비도 유가 안정에 따라 점진적인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됨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44) 스크랩워치(2026.06.16.), <https://www.scrapwatch.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291>(2026.06.16. 검색)

45) 중량A(중A): 두께 6mm 이상의 두꺼운 철판·형강 등 비교적 크고 무거운 스크랩. 품질이 좋아 가격이 가장 높음

46) 방통차(방통차량): 철스크랩(고철) 수집·운반에 사용되는 특수 화물차량

10) 철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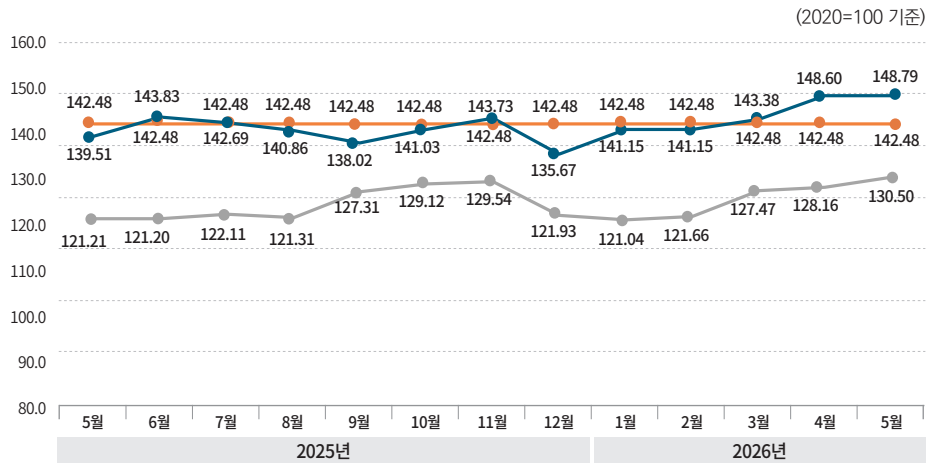
1

2026년 5월 국내 철강 반제품 물가지수, 슬래브·빌렛 전년 동월 대비 상승세 유지

- 2026년 5월 국내 주요 철강 반제품(선철·슬래브·빌렛) 생산자 물가지수는 슬래브·빌렛 모두 전월 및 전년 동월 대비 상승세를 이어가며 4월에 이어 플러스 기조를 유지함
 - 선철은 2026년 5월에도 142.48을 유지하며 전월·전년 동월 대비 모두 변동이 없었으며, 장기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음
 - 슬래브는 2026년 5월 148.79로 전월(148.60) 대비 0.1% 소폭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월(139.51) 대비로는 6.7% 상승하며 4월에 이어 관측 기간 최고 수준을 유지함
 - 빌렛은 2026년 5월 130.50으로 전월(128.16) 대비 1.8%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월(121.21) 대비로는 7.7% 올라 세 품목 중 전년 동월 대비 상승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
- 슬래브·빌렛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 기조가 4월에 이어 5월에도 지속되며 반제품 시장의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함
 - 슬래브는 2개월 연속 관측 기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빌렛은 전월 대비 상승 폭(+1.8%)이 4월(+0.5%)보다 확대되어 회복 모멘텀이 강화되는 흐름임

선철, 슬래브 및 빌렛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 선철
● 슬래브
● 빌렛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율(%)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선철	142.48	142.48	142.48	142.48	142.48	142.48	142.48	142.48	142.48	142.48	142.48	142.48	142.48	0.0	0.0
슬래브	139.51	143.83	142.69	140.86	138.02	141.03	143.73	135.67	141.15	141.15	143.38	148.60	148.79	0.1	6.7
빌렛	121.21	121.20	122.11	121.31	127.31	129.12	129.54	121.93	121.04	121.66	127.47	128.16	130.50	1.8	7.7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SearchStat\(2026.06.24. 검색\)](https://ecos.bok.or.kr/#/SearchStat(2026.06.24. 검색))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2 중국, 2026년 1-5월 조강 생산량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 압연강·선철도 동반 감소⁴⁷⁾

-  중국 국가통계국(NBS,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에 따르면 2026년 1월~5월 중국 조강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한 4억 1,550만 톤을 기록함
 - 같은 기간 압연강은 5억 9,300만 톤(-1.5%), 선철은 3억 5,470만 톤(-3.1%) 감소함
 - 1월~5월 누적 감소 폭은 1월~4월 대비 0.2%p 축소되었으며, 철강 업계 자체적인 생산량 조절 노력과 공급 측 구조 개혁이 감소세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 5월 단월 기준으로는 조강 8,440만 톤(-2.7%), 압연강 1억 2,300만 톤(-2.8%), 선철 7,300만 톤(-2.6%)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가 이어짐
 - 다만 전월(4월) 대비로는 선철 +3.2%, 조강 +0.9%, 압연강 +0.3%로 세 품목 모두 소폭 반등함
 - 조강의 전월 대비 증가는 5월 전통적 소비 성수기 진입과 건설활동 확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  중국의 조강 생산량은 2025년 9억 6,080만 톤으로 전년 대비 4.4% 감소하며 201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음
 -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국내 수요 위축이 생산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47) GMK Center(2026.06.16.), [https://gmk.center/en/news/china-reduced-steel-output-by-3-9-y-y-in-january-may/\(2026.06.16. 검색\)](https://gmk.center/en/news/china-reduced-steel-output-by-3-9-y-y-in-january-may/(2026.06.16. 검색))

11) 자동차



① 2026년 4월 자동차산업, 생산·국산차 내수 전년 동월 대비 감소

- 4월 내수는 전월 대비 8.0% 감소, 전년 동월 대비 0.7% 증가한 151,693대를 기록함
 - 중동사태로 인한 고유가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및 3월 말 발생한 부품사 화재로 인한 부품 수급 문제로 내수 판매가 감소함
 - 친환경차 내수는 고유가 부담이 지속되면서 전기차 선호 추세가 지속되어 전년 동월 대비 31.1% 증가한 91,290대가 판매되었으며, 전체 내수 판매의 60.2%를 차지함
- 4월 수출은 전월 대비 5.4%, 전년 동월 대비 0.6% 감소한 245,456대를 기록함
 - 중동 영향의 일부 반영에도 북미 중심 수출 구조를 기반으로 한 한국지엠의 물량 확대가 감소 요인을 일부 상쇄하면서 전년 수준을 유지함
- 4월 생산은 전월 대비 6.3%, 전년 동월 대비 6.1% 감소한 361,923대를 기록함
 - 중동 영향에 따른 일부 수출 물량 감소와 협력사 화재에 따른 부품 수급 차질로 내수 물량이 영향을 받음

단위 : 대, 백만 \$, %

2026년 4월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구분	2025년			2026년			증감률		
	연간	4월	4월 누적	3월	4월	4월 누적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4월 누적 대비
내수	1,680,110	150,622	538,921	164,812	151,693	560,597	-8.0	0.7	4.0
(국산차)	1,355,296	127,516	450,851	128,757	115,937	437,614	-10.0	-9.1	-2.9
(수입차)	324,814	23,106	88,070	36,055	35,756	122,983	-0.8	54.7	39.6
OEM 수입	17,925	1,642	6,195	2,103	1,792	6,977	-14.8	9.1	12.6
수출	2,736,109	247,032	920,761	259,440	245,456	942,675	-5.4	-0.6	2.4
(완성차 수출액)	71,976	6,527	23,811	6,370	6,166	23,408	-3.2	-5.5	-1.7
(부품 수출액)	21,200	2,025	7,304	1,796	1,894	6,771	5.5	-6.5	-7.3
생산	4,102,200	385,624	1,398,902	386,363	361,923	1,387,040	-6.3	-6.1	-0.8

주: 수입차는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승용차등록통계+국내제조사의 해외공장산 수입판매(OEM수입)+Tesla 합산, 수출액은 관세청 수출입통계(MTI 741, MTI 742)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2026.06.05.),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383&menunum=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6.06.26. 검색)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 하이브리드·SUV 중심 자동차 수출 확대⁴⁸⁾

 하이브리드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친환경차 수출 증가를 견인하며 자동차 수출 경쟁력을 강화함

- 완성차업계는 전기차 신차 출시와 함께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확대하며 친환경차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함
- SUV 수요 확대와 하이브리드 모델 확대로 주요 수출시장에서 친환경차 수요 기반이 강화되었으며, 하이브리드 모델은 세단과 레저용 차량(RV)까지 확대되며 소비자의 연비, 주행 편의성,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요가 증가함
- 완성차업계는 기존 생산 기반을 활용해 지역별 친환경차 수요에 대응하고 있음

 친환경차 수출 증가와 하이브리드차 수출 확대가 자동차 수출 실적을 견인함

- 완성차업계는 전기차 신차 출시와 함께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확대하며 친환경차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음
- 하이브리드 모델은 SUV를 비롯한 다양한 차종으로 확대되며 주요 수출시장의 친환경차 수요 기반을 강화하고 있음
- 소비자는 연비와 주행 편의성, 가격 경쟁력을 고려해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완성차업계는 기존 생산 기반을 활용해 지역별 친환경차 수요에 대응하고 있음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8) 글로벌이코노믹(2026.06.13.), https://www.g-enews.com/view.php?ud=202606131742324902112616b072_1(2026.06.26. 검색)

3 현대자동차, 중국 수소사업 확대⁴⁹⁾

 현대자동차그룹은 중국 생산거점인 HTWO 광저우를 중심으로 중국 수소시장 공략을 확대함

- HTWO 광저우는 현재자동차의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생산 법인으로, 2025년 중국 시장에서 수소 상용차 900대를 판매해 외자기업 판매 1위를 기록했으며, 광저우시 수소에너지 분야 산업체인 선도기업으로 선정돼 기술 경쟁력과 수소 산업 생태계 기여도를 인정받음
- 현대자동차그룹의 중국 수소연료전지 생산 거점인 HTWO 광저우는 2026 국제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차 대회에 참가해 수소연료전지시스템과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기술을 공개하고 산업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HTWO 광저우는 해외 수소연료전지 생산·판매 거점으로서 중국 현지 생산과 판매를 확대하는 인 차이나, 포 차이나, 투 글로벌(In China, For China, To Global)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현대자동차그룹은 연구개발과 국제 협력을 통해 수소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현대자동차그룹은 2025년 중국 연료전지 기술연구소를 설립해 중국 시장 맞춤형 수소연료전지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울산광역시와 광저우시 간 수소 생태계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 현대자동차그룹은 새만금 인공지능(AI)·수소 시티 조성과 임직원 통근용 수소전기버스 추가 도입 등 국내 수소 생태계 구축도 추진하고 있음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9) 한국경제(2026.06.15.),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61562051>(2026.06.26.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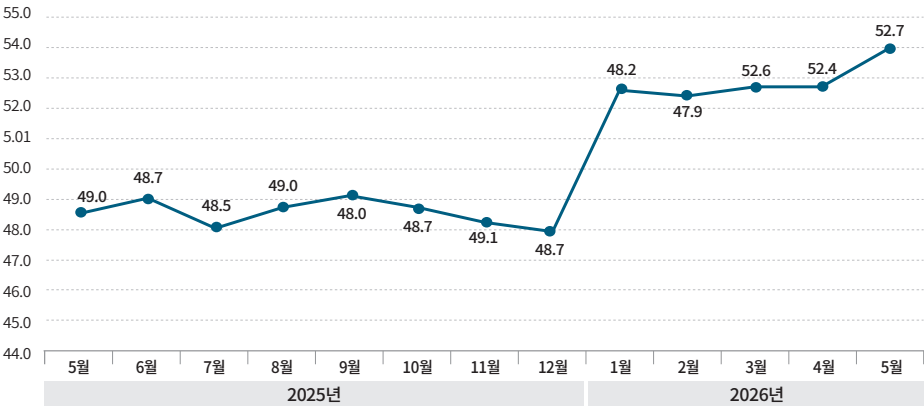
12) 잡화



1 2026년 5월 미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54.0 기록, 확장 국면 5개월 연속 유지

- 2026년 5월 미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전월(52.7) 대비 상승한 54.0을 기록하며 기준선(50)을 상회하는 확장 국면을 5개월 연속 유지함
 - 2026년 1월 52.6으로 급반등한 이후 52p대 수준에서 안정적인 확장 흐름을 이어오다 5월에 54.0으로 상승하며 확장세가 강화됨
 - 2025년 하반기 위축 구간(50 이하)에서 완전히 벗어나 확장 기조가 공고화되는 모습임
- 전월 대비 상승하며 확장 흐름이 강화되고 있음
 - 전월(52.7) 대비 2.5% 상승하며 4개월간 이어진 52p대 보합세에서 벗어나 상승 전환됨
 - 전년 동월(48.5) 대비 5.5p 상승하며 전반적인 제조업 경기 개선 흐름이 확인됨
- 제조업 경기 확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변동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함
 - PMI가 50 이상을 유지하며 생산 및 수요 회복 기대가 지속되고 있으나,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향후 신규주문 및 생산지표의 지속적 개선 여부가 확장세 유지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PMI
(구매관리자지수) 추이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율(%)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PMI	48.5	49.0	48.0	48.7	49.1	48.7	48.2	47.9	52.6	52.4	52.7	52.7	54.0	2.5	11.3

자료: Trading Economics(2026.06.01.), <https://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business-confidence>(2026.06.25. 검색)

13) 유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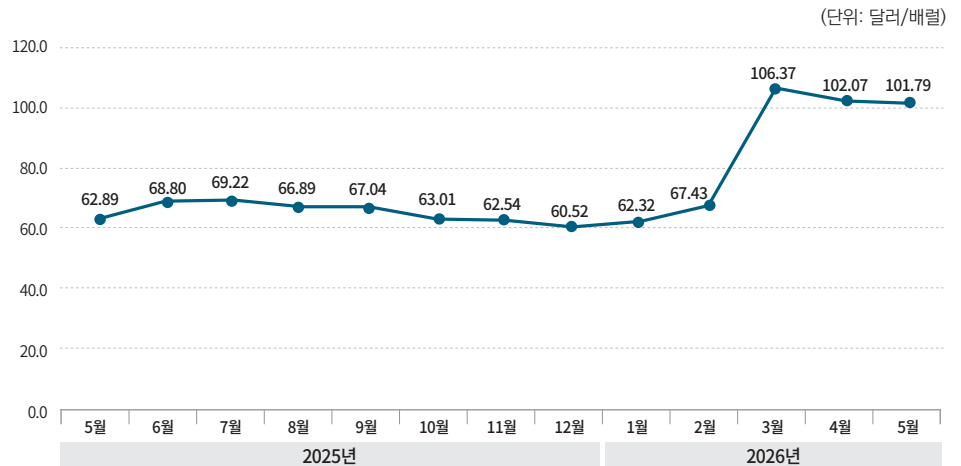


① 2026년 5월 국제유가, 전월 대비 0.3% 하락

5월 세계 3대 유종의 배럴당 평균 유가는 전월 대비 0.3% 하락, 전년 동월 대비 61.8% 상승한 101.79달러를 기록함

- 2025년 12월 최저 수준을 기록한 국제유가는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2월 28일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3월에 최고점을 찍고 서서히 하락하고 있음
- 큰 폭으로 상승했던 두바이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3대 유종의 유가 차이 폭이 감소함
-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면서 유가는 하락할 것으로 보이나, 아직 중동의 긴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며 통행료 등의 이슈가 남아 있어 향후 유가 추이는 불확실함

국제 원유 가격 추이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율(%)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Dubai	63.73	69.26	70.87	69.39	70.01	65.00	64.47	62.05	61.97	68.40	128.52	105.70	103.15	-2.4	61.9
Brent	64.01	69.80	69.55	67.26	67.58	63.95	63.66	61.63	64.73	69.37	99.60	102.46	103.71	1.2	62.0
WTI	60.94	67.33	67.24	64.02	63.53	60.07	59.48	57.87	60.26	64.52	91.00	98.06	98.51	0.5	61.7
평균	62.89	68.80	69.22	66.89	67.04	63.01	62.54	60.52	62.32	67.43	106.37	102.07	101.79	-0.3	61.8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국제석유가격, [https://www.petronet.co.kr/v4/sub.jsp\(2026.05.25. 검색\)](https://www.petronet.co.kr/v4/sub.jsp(2026.05.25. 검색))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 2026년 5월 석유제품 생산자물가, 중유 하락·LPG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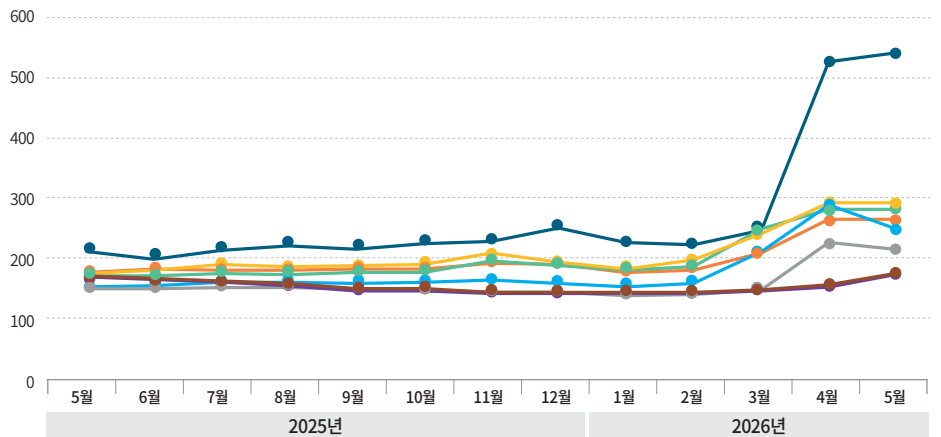
5월 석유제품의 생산자물가지수는 중유가 전월 대비 13.5% 하락했으나, LPG(부탄, 프로판)는 11.3% 증가함

- 원유 정제를 통해 산출되는 석유제품은 원유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상승세를 보여왔으며,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LPG(11.3%), 제트유(2.8%)가 상승함
- 다만, 중유(-13.5%), 벙커C유(-5.0%)는 하락했으며, 그 외 품목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단위: 2020 = 100 기준)

주요 석유제품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 휘발유
 ● 제트유
 ○ 등유
 ○ 경유
 ○ 중유
 ○ 벙커C유
 ○ 프로판가스
 ○ 부탄가스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율(%)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휘발유	180.67	185.65	185.22	183.54	187.01	185.28	194.82	192.80	181.19	183.55	211.68	265.58	265.52	0.0	47.0
제트유	215.74	203.04	216.72	224.04	219.69	228.03	231.42	253.78	229.72	226.17	249.67	525.83	540.48	2.8	150.5
등유	174.26	175.81	179.58	177.38	180.17	180.35	199.53	192.10	183.47	190.22	249.25	282.00	282.06	0.0	61.9
경유	179.39	183.89	193.77	189.98	191.88	192.88	212.31	196.89	186.87	200.77	242.49	292.58	292.78	0.1	63.2
중유	157.55	159.33	165.12	164.06	163.28	163.56	168.14	163.07	157.79	162.96	213.30	289.27	250.26	-13.5	58.8
벙커C유	152.93	153.43	155.68	154.79	152.57	150.69	147.88	147.85	142.81	143.44	150.93	226.71	215.43	-5.0	40.9
프로판	169.66	165.88	162.10	157.19	150.49	150.49	146.20	146.20	146.20	146.20	149.49	155.59	173.14	11.3	2.1
부탄가스	172.39	168.50	165.07	160.80	153.49	153.49	148.38	148.38	148.38	148.38	151.67	157.95	175.87	11.3	2.0

주: 주요 석유제품인 나프타는 화학공업생산품의 주요 지표로 정리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SearchStat\(2026.06.25.검색\)](https://ecos.bok.or.kr/#/SearchStat(2026.06.25.검색))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3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지연 전망⁵⁰⁾

-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도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정상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해운업계는 걸프만에 발이 묶인 약 500척의 상선 적체 해소에 수주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함
 - 해협 내 기뢰 위험과 이란의 재봉쇄 가능성이 남아 있어 선사들의 정상 운항 재개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
 - 영국과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해군은 해협 내 기뢰 제거를 지원하기 위해 지중해에 함정을 대기시킴
 - 홍해의 통항량이 분쟁 이전 대비 약 56% 감소한 수준에 머무는 사례와 같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회복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됨
-  에너지업계는 석유시장 공급 긴장이 2027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을 제시함
 - 석유업계는 해운 물류 정상화, 에너지 인프라 복구, 원유 재고 재축적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함
 - 낙관적 시나리오를 가정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은 부분적으로만 통항이 재개되고 재봉쇄 위험에 따른 공급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분석됨
 - 에너지·해운업계는 종전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0) 이투데이(2026.06.15.), <https://www.etoday.co.kr/news/view/2593635>(2026.06.26. 검색)

4 국내 원유 수급 영향 제한 전망⁵¹⁾

-  정부와 정유업계는 대체 원유 확보와 비축유 보유를 바탕으로 미국·이란 종전 합의가 국내 원유 수급에 미치는 단기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함

 - 정부와 업계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대체 경로를 활용하고 비중동산 원유 도입을 확대해 원유 공급망을 다변화함
 - 정부는 2026년 5~7월 원유는 전년 대비 86%, 나프타는 83%를 확보했으며, 2026년 8월 원유 도입 예상 물량도 80% 중반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함
 - 국내 석유화학 기업의 나프타분해시설(NCC) 가동률은 중동산 원유 수급 차질로 55%까지 하락했으나 2026년 5월 말 기준 약 75%까지 회복됨
 - 한국석유공사는 9개 비축기지에 약 1억 배럴의 전략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하루 석유 소비량 280만 배럴 기준 한 달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규모임
-  호르무즈 해협 통항 안전성 검증 전까지는 원유 도입선 다변화가 지속될 전망이다

 - 업계는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더라도 기뢰 제거와 통항 안전성 검증에 시간이 필요해 단기간 내 원유 도입 확대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함
 - 중동에서 한국까지의 항행 거리와 유조선 왕복 운항 시간을 고려할 때 해협 개방 이후에도 실제 원유 도입에는 일정 기간이 필요함
 - 정부는 미국과 동남아시아 등을 통해 2026년 연말까지 사용할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대체 물량도 확보함
 - 업계는 종전 합의가 이행되고 통항 안전성이 확인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도입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고 봄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1) 연합뉴스(2026.06.15.), <https://www.yna.co.kr/view/AKR20260524045000003?input=1195m>(2026.06.26. 검색)

14) 화학공업
생산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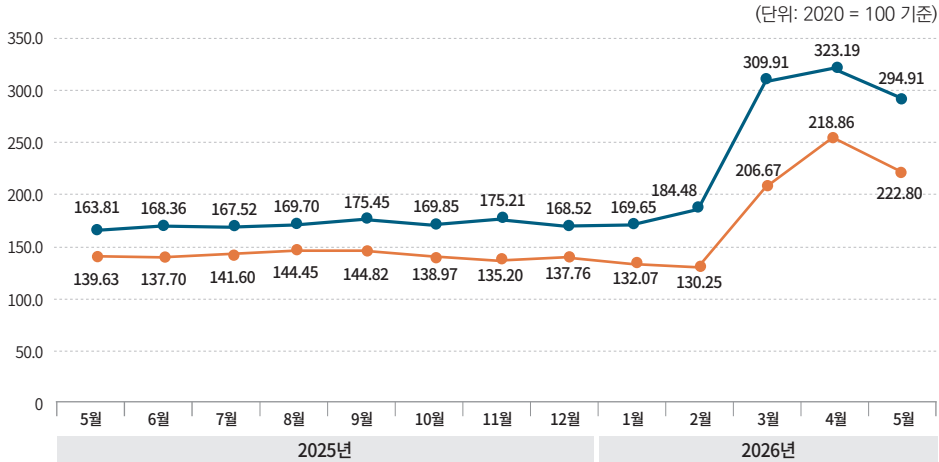


나프타 및 에틸렌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 나프타
● 에틸렌

① 2026년 5월 생산자물가지수, 전월 대비 나프타 및 에틸렌 하락 전환

- 5월 나프타와 에틸렌의 생산자물가지수는 각각 전월 대비 8.8%, 12.7% 감소한 294.91p, 222.80p를 기록함
- 원유 정제를 통해 생산되는 석유제품인 나프타의 생산자물가지수는 국제유가가 소폭 하락하면서 5월에 하락 전환함
- 석유화학산업은 나프타와 에틸렌 등을 원료로 각종 플라스틱·합성수지·화학제품 등을 생산하고 있어 국제유가와 원료가격 변동이 생산비 및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면서 유가가 지속 하락하면, 나프타와 에틸렌도 동반 하락할 것으로 보임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율(%)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나프타	163.81	168.36	167.52	169.70	175.45	169.85	175.21	168.52	169.65	184.48	309.91	323.19	294.91	-8.8	80.0
에틸렌	139.63	137.70	141.60	144.45	144.82	138.97	135.20	137.76	132.07	128.74	206.67	255.27	222.80	-12.7	59.6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SearchStat>(2026.05.25. 검색)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 석유화학 수익성, 현물시장 나프타 투입으로 재하락 우려⁵²⁾

❖ 석유화학산업의 수익성 지표인 에틸렌 스프레드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하락하며 업계의 실적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산업통상부 원자재가격정보에 따르면 2026년 6월 5일 기준 에틸렌 스프레드는 톤당 96.40달러까지 하락함
- 에틸렌 스프레드는 에틸렌 가격에서 원료인 나프타 가격을 뺀 지표이며, 업계는 통상 톤당 250달러를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음
- 에틸렌 스프레드는 이란 전쟁 직전인 2026년 2월 톤당 55.15달러까지 하락했으나 전쟁 이후 2026년 4월 톤당 314.86달러로 상승함
- 이란 전쟁 장기화로 에틸렌 가격이 안정되면서 에틸렌 스프레드도 전쟁 전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음

❖ 석유화학업계는 고가 나프타 투입과 공급 증가 가능성으로 2026년 3분기 적자 전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

- 석유화학업체들은 전쟁 전 저렴하게 확보한 나프타를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면서 래깅 효과로 2026년 1분기 흑자 전환을 기록함
- 롯데케미칼은 2026년 1분기 영업이익 735억 원을 기록해 10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으며, LG화학 석유화학 부문과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도 영업이익을 기록함
- 업계는 저가 나프타 재고가 소진되고 현물시장에서 비싸게 확보한 나프타가 공정에 투입되면서 2026년 3분기부터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음
- 정부와 업계는 대산 산단 나프타분해설비(NCC) 통합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여수와 울산 지역 구조조정과 사한 프로젝트 가동 여부가 향후 수익성 변수로 제시됨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2) 동아일보(2026.06.11.),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60611/134093372/1\(2026.06.26. 검색\)](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60611/134093372/1(2026.06.26. 검색))

3 나프타 부족, 아시아 석유화학 공급망에 충격⁵³⁾

-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산 나프타 수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석유화학산업의 가동 부담이 확대됨
 - 나프타는 플라스틱, 합성고무, 산업용 잉크, 가전·자동차 부품용 화학물질 생산에 활용되는 석유화학 핵심 원료임
 - 한국, 일본, 베트남의 석유화학 공장은 중동발 나프타 공급 차질로 가동 중단과 대체 조달 부담을 겪고 있음
 - 중동 외 지역산 나프타 가격은 분쟁 직후 평시 대비 최대 100% 상승했으며, 이후 완화됐으나 여전히 30%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아시아 석유화학 업계는 중국발 저가 제품 확대와 원자재 조달 비용 상승으로 수익성 악화 부담이 커지고 있음
-  중국은 원료 조달 다변화와 대체 원료 활용을 바탕으로 석유화학 공급망 위기 속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음
 - 중국은 러시아산 원유 도입과 천연가스·석탄 기반 원료 활용을 통해 중동산 나프타 의존도를 낮췄으며, 중국 화학기업은 중동발 공급 차질 속에서도 공장 가동을 이어가며 글로벌 화학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있음
 - 한국은 정부 주도로 대형 에틸렌 공장 간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태국도 기초화학 및 범용 플라스틱 사업 통합을 검토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자원 공급망 협력을 위한 POWER Asia 구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 석유화학업계는 한국과의 나프타 교환 및 위험 분산 협력 필요성을 제기함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3) 글로벌이코노믹(2026.06.12.), [https://www.g-enews.com/view.php?ud=2026061207274142660c8c1c064d_1\(2026.06.26. 검색\)](https://www.g-enews.com/view.php?ud=2026061207274142660c8c1c064d_1(2026.06.26. 검색))

4 호르무즈 정상화, 석유화학 업계 기대와 불안 공존⁵⁴⁾

-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기대가 커지면서 원유 수급과 국제유가 안정 가능성이 제기됨
 - 미국과 이란은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협상을 완료했으며,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행이 가능해진 것으로 전해짐
 - 종전 소식 이후 2026년 7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West Texas Intermediate)는 전 거래일 대비 4.7% 하락한 배럴당 80.89달러에 거래됨
 - 정유업계는 중동산 원유 수급 차질과 비중동산 대체 원유 확보 과정에서 원유 프리미엄과 운송비 부담이 확대되었으나, 해협이 다시 열리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유조선과 상선이 순차적으로 운항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됨
-  석유화학 업계는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에도 고가 원재료 투입과 석유 최고가격제 지속에 따른 수익성 부담을 우려함
 - 석유화학업계는 나프타 확보 차질로 2026년 3월 나프타분해시설(NCC, Naphtha Cracking Center) 가동률이 60% 수준까지 하락했으며, 일부 기업은 제품 공급 계약 이행 지연 가능성을 제시함
 - 석유화학 업체들은 전쟁 기간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확보한 원재료를 공정에 투입하고 있어 유가 하락 시 제품가격 약세와 수익성 악화가 발생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쟁 종료,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국제유가 90달러대 안착 등을 고려해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며,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장기화에 따른 정유업계 손실 보전을 위한 고시 제정을 추진할 예정임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4) 아시아타임즈(2026.06.15.),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60615500290>(2026.06.26. 검색)

연구책임자

이나영 항만수요분석연구실장

연구진

신정훈 항만수요분석연구실 부연구위원

박세리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이화섭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최상균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신현수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연구원

감리

김찬호 항만연구본부장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발행일 2026년 6월 30일

편집·발행인 조정희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분석연구실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www.kmi.re.kr
TEL 051-797-4800 **FAX** 051-797-4810

편집디자인 크리커뮤니케이션 **TEL** 02-2273-1775